

3일 Market Index			
코스피	3116.27	코스닥	793.33
	(+41.21)		(+11.16)
금리 (미국 9년)	2.449	환율 (원·달러)	1359.60
	(-0.034)		(+0.9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경제 흐름 부동산→금융시장 전환”

李 대통령 취임30일 회견
 민생회복·성장도약 최우선
 지원금 추가 계획은 없어
 부동산 규제는 맞보기 불과
 수도권 과밀화 완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타운홀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10여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단히 30일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업무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한 달 간의 성과로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 ▲국제무대 복귀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 ▲정의로운 통합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꼽았다. 특히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만든 점을 언급하며,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끝낸 이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며 “일단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부동산대출 규제는 맞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이어 “부동산 공급대책에서는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새로운 방식의 공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으로 현금 유동성이 옮겨질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지역균형발전 등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주식 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경제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또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상법 개정發 증시 기대감… “코스피 4000 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단기 과열 우려, 경계론 부상**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다.”

3일 하나증권은 ‘상법 개정 통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냈다. 이날 국회가 소액주주 권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을 담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으로)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연일 최고점을 새로 쓰자 증권가에선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40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주가가 짧은 기간 너무 뛰다

보니 코스피가 조만간 조정을 받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4% 오른 3116.2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다. 코스피는 3200선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한다.

하나증권은 목표기간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코스피 목표치를 4000까지, 삼성증권은 3800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KB증권은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3700으로 잡았다. 신한투자증권은 3

분기 예상범위를 2850~3500으로 제시했다. 현대차증권은 내년 상반기 36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낙관론의 근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경기정성화) ▲상법 개정 등 증시 부스트업 재료 ▲달러화 약세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합의 ▲반도체 업황 회복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식투자 선호 등이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초고령 사회, 자산관리 전략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가 자고나면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떨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0%로 세계 꼴찌, 빚 증가는 세계 최고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0%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 행사명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 ◆ 주 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 일 시 : 7월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40~ 14:00)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의 및 참가 신청 :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美-베트남 관세 인하에 현지거점 둔 韓기업 ‘방긋’

미국이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이에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기업들도 관세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며 긴장감이 풀릴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20% 관세를, 환적 물품에 대해서는 40%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환적 물품은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국가 제품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합의는 트럼프가 지난 4

월 베트남에 대해 제시했던 46%의 고율 관세 방침에서 크게 물러선 것으로 미국과 베트남 간 통상 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관세 부담 완화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주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1만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베트남이 점차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내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 “전형적인 내로남불”
 ▲박찬대 “9월까지 검찰청 해체”… 정청래 “추석에 ‘검찰청 폐지’ 뉴스 들리게”
 /사진 뉴시스

▲美 상호관세 시한 임박… 내일 ‘한미 관세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한미일 합참의장, 내주 서울서 李 정부 출범 후 첫 회동… 북핵문제 등 논의

▲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한미동맹 계속 충실”
 ▲‘단식투쟁’ 김성태 “나경원, 소꿉놀이 당장 건너치우고 삭발해야”

부실 사립대 ‘폐교’ 법적근거 마련 설립자 정리금, 교직원 위로금 준다

교육위,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해산이후 남은재산으로 채무정리
직원 고용승계 등 후속대책 필요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정리를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직접 폐교를 명령하고 해산 절차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 단계까지 진입한 것으로, 2010년 첫 발의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

이번 법안은 신입생 충원을 저하와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구조개선 진단을 실시하고, 폐교나 법인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산 이후 남은 재산에서 채무 정리와 교직원·학생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마친 뒤, 잔여 재산의 최대

15%는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설립자의 자발적 폐교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사립대의 경우 기존에는 폐교 시 학교 재산이 전액 국가로 귀속돼, 설립자 입장에서는 문을 닫을 유인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가며 교육의 질 하락, 교직원 급여 체불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학을 압박해 왔지만, 법적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였다.

실제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22곳에 불과했고, 자진 폐교는 6곳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 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 대학이 교직원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위기 대학’으로 판정됐다.

법안에는 교육부 산하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심의회’를 설치해 구조개선 조치와 해산 절차를 심의하도록 했으

며, 전담 기관 지정과 함께 교직원과 학생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폐교에 따른 교직원 고용 승계나 재취업 지원 방안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는 하나의 학교법인이 여러 대학을 운영할 경우, 일부 대학만 폐교해도 나머지 대학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보완됐다. 자발적 폐교 대학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해 “의결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공포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복날 앞두고… 닭고기 가격 30% ‘쾅충’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7월호
육계 전년대비 27.9% 상승 전망
여름 과일·채소 가격 오름세 비상

한여름 삼복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박·참외·여름배추 등도 가격 오름세가 예측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3일 발표한 ‘농업관측 7월호’에 따르면 7월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2000원으로 전월(1892원) 대비 5.7% 올라 전년(1563원) 대비 27.9%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평년(1743원) 대비로도 14.7%나 높은 수준이다.

육계 가격은 통상 7~8월 복 성수기에 오르면 하지만 올해는 4~5월에 이미 2000원대를 기록하는 등 높은 가격 수준에 달한 상황이다.

닭고기 가격은 올해 1월부터 1927원으로 시작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다 4월에 2265원으로 20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월에 기록한 1860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됐던 것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달 브라질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산 수입이 재개됐고, 이달 하순부터는 대체 수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닭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입국인 태국산 닭고기가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닭고기 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등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 과일·채소 가격의 오름세도 비상이다. 7월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10kg에 1만1000원으로 전년(1만448원) 대비 5.3%가량 오를 전망이다. 평년(9596원) 대비로는 14.6% 높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추경 집행 앞두고 생활 물가잡기 총력전

李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률 과제

“매일 사는 달걀·라면 가격에 중점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채감물가 안정 기여할 것으로 보”

추가경정예산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면 내수 진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물가 자극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올해 5월(+1.9%) 2% 밑에 머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2.2%)에 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하반기 중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추경이 큰 몫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치솟을 경우 위축된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뎠다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먹거리 등 민생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서 중요한 건 물가 관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가 매일 사는 달걀의 가격, 라면의 가격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이달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생계비 부담과 채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물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에 포함된 산란기 케이지 교체 경우 계란값 안정 효과



러브버그를 비롯해 모기, 해충 등이 기승을 부려 유통업체의 방충용품 매출이 증가한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기피제 및 살충제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가 있고, 마른김 설비 교체 지원은 생산을 늘려 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도 채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미국의 관세조치, 여름철 기상여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체계 투명화 및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5240→6240t, ~7월말)한다.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 등도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8~9월) 3만t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에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여

름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왔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기관 다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을 쏟아 냈다. 기재부 역시 지난달 5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 1.8%에서 1%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대응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덩치 커진 서비스산업… 생산성 ‘지지부진’

한은, 서비스 산업 생산성 평가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생산성·효율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조기술과 결합해 수출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서비스업 비중은 제조업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1990년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대 중후반에서 정체된 반면 서비스업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기준 명목 GDP의 44%를 차지한다.

취업자 비중도 서비스 산업에 쏠렸다. 제조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1989년 28%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65%를 차지했다.

문제는 서비스업 산업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기업간 거래(B2B) 업종을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고용측면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대상 거래(B2C)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B2C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총고용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누리 기자 yul115@

“코스피, 단기 과열권… 리스크 관리 중요”

» 1면 ‘상법 개정發…’서 계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한국 증시가 오랜 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수준을 지속한 것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과 높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책이 실행되면 기업의 자기자본비용(COE) 중 거버넌스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 전망도 나쁘지 않다. 재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2684억원어치를 샀다.

반면 신종훈자의 생각은 다르다. 증시 흐름에 대해 “오버슈팅(단기 과열) 성격이 짙다”는 걱정이 크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로,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며 “미국의 관세 위협 재개나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같은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 주변을 맴돈다. 투자 자금이 쏠리는 지금이야말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달려 약세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장기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원 기자 zelkova@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주식 반환·주총 금지’ 공방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윤상현, 콜마비엔에이치 주총 소집
사내이사 선임 등 이사회 재편 예고
윤동한·윤여원, 법적 대응 ‘맞붙’

최근 두 달 간 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산됐다.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간의 경영권 총독은 결국 부자 간의 주식 반환 소송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현재 ‘삼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3일 국내 부티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이 가장 먼저 법적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시 주총 안건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윤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 재편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지난 6월 18일 대전지법은 해당 사건 심문을 종결해 콜마그룹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의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반격하고 있다.

우선,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윤 회

장 측에 따르면, 2019년 주식 증여는 윤동한 회장·윤상현 부회장·윤여원 대표 3자 간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다.

당시 윤 부회장은 증여를 통해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하게 됐고, 지분율 30.25%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2024년 5월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율은 윤상현 부회장 31.75%,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7.45%,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 5.69%, 윤동한 회장 5.59% 순

이다.

윤 회장은 지금 윤 부회장이 윤 대표 경영권과 콜마비엔에이치 경영체계를 공격하는 행보는 증여 조건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걸었다. 이 소송들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됐고, 지난 6월 27일 법원은 윤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해당 주식 규모는 콜마홀딩스 전체 지분의 14% 수준이다. 윤 부회장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윤 대표는 지난 6월 10일 윤 부회장이 요구하는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약정 위반과 경영질서 파괴를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한 심문이 지난 2일 대

전지법에서 열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고, 법원은 추가 서면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까지로 지정했다.

윤 대표 측은 “지주사의 일반적 경영 개입을 막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의 부진한 실적을 지적해 왔고, 지주사 경영진으로서 그룹 전체와 그룹 내 계열사 경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엔에이치 최대 주주로 지분율 44.63%를 보유하고 있다. 윤 대표와 윤 회장의 콜마비엔에이치 지분율은 각각 7.72%, 1.11% 등으로 이뤄졌다. 또 콜마비엔에이치의 이사회의 경우 윤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인사 2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윤 회장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며 복귀한 상황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1면 ‘美-베트남 관세인하’서 계속

주요 IT기업 노조 결집… 집회·파업 등 집단행동 예고

IT업계, 노사 리스크 경고등
“관계 전환점… 갈등 예측 불가”

정보를 둘러싼 통제가 논란이던 ‘인공지능(AI) 시대의 중심’ 판교가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네이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주요 IT기업 노조들이 결집해 강경 노선을 택하면서, 한때 ‘노조 불모지’로 불리던 판교에 노사 리스크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네이버 노동조합은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정기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일 열린 3차 집회에서 네이버 지회는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의 해임을 촉구하며, 이사회와 국민연금에 각각 공문과 공개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익 제보자 색출 중단 ▲최 대표 복귀 관련 회의록 및 해명자료 공개 ▲최 대표 해임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삼아 이사회에 주주 권한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성남시 판교 1784 일대에서 네이버 노조가 최인혁 테크 비즈니스 부문 대표 해임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네이버 노조

또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도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세훈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변대구 전 이사회 의장이 최 대표 복귀를 주도한 책임이 가장 크다”며, 두 인물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최 대표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COO(최고운영책임자) 직에서 물러났다가, 2024년 3월 복귀했다. 이사회는 그의 복귀 직전 비공식 설명회를 열었고, 노조는 이를 ‘절차적 투명성’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카카오, 넥슨, 한글과 컴퓨터 등 23개 지회가 연대 참여해

200여명이 집결했다. 화성식품노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전 대표에게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2021년 국감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조 갈등은 이제 네이버를 넘어 판교 IT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 다른 간판기업인 카카오는 콘텐츠 CIC 분사 반대와 저성과 보상 문제를 두고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을 감행했으며, 최근 협상 재개와 함께 전면파업 계획은 유보한 상황이다.

넥슨 자회사 네오플은 성과급 축소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글과컴퓨터 노조도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제도 개편과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고시키며, 첫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속하기 시작한 노조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IT위원회에는 카카오키지회를 비롯해 네이버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소프트지

회, 웹젠지회, NHN지회, 아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알티베이스지회,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지회, 씨디네트웍스지회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구광지회가 합류했다.

업계가 결속을 우려하는 이유는 단순한 연대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교섭력을 갖춘 집단 교섭 블록으로 진화할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 지회는 비슷한 근무 환경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사안별 공동행동과 연대 집회를 반복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 아닌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통 요구안이나 파업 연대가 현실화될 경우, IT 업계의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운영 체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황용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IT 산업은 이제야 노사관계의 전환점에 진입했다”며 “기존 제조업처럼 협상 관행이 쌓이지 않은 만큼, 갈등이 더욱 뾰족하고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산업계 ‘안도의 한숨’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

특히 베트남에 스마트폰·가전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고율관세를 피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현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며 이들 물량 중 상당수가 북미항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또한 세탁기를 비롯해 베트남 하이퐁에서 생산되는 생활가전 물량의 다수를 북미로 수출하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관세가 줄어든 부분이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베트남 외 다른 국가들의 관세 변동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긴밀하게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와 한화는 철강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에 투자하며 자본 투입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교육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베트남에서 희토류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전략적 협력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사업의 경우 이미 중국이 미국에 의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이 많아 미국 직수출에는 한계가 있어 동남아 및 주변 국가에 생산 거점을 만들어 수출 대응 중”이라며 “환적 상품 관세 부과에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 설정에 대해서도 양국의 협의사항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효성그룹 역시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운영 중이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발 효성 계열사 제품은 효성티앤씨의 섬유 제품과 효성티앤에스의 ATM기기가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효성의 베트남 법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세 부담까지 낮아진 만큼 현재 상황이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31억弗… 2022년 이후 최저

글로벌 관세 등 신규투자 영향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하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착 기준으로는 72억9000만달러로 2.7% 증가했으나, 신고 대비 실제 자금 유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2025년 상반기 외투동향을 발표했다. 미국

의 고율 관세 조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내 정치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유보된 상황이란 설명이다.

유럽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한국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받을 정도로 우려가 컸다”며 “당시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투자 결정이 상당수 보류됐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31.3억달러(+20.2%), 22.4억달러(+14.5%)의 투자신고를 기록해 선전했으나, 일본(-25.4%)과 중국(-39.0%)의 감소폭이 컸다.

업종별로는 유통(+73.3%), 정보통신(+9.4%) 등 서비스업이 상승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대부분 부진했다.

상반기 도착기준 외투는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여전히 202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제 투자 실행률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정책관은 “실체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투자 건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치적 안정과 미국 관세 윤곽이 드러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정책관은 “특히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관세정책이 명확해지는 7~8월 이후 신규 투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저하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문턱 낮춘 디지털자산법… ‘원화 코인’ 신뢰·인프라가 열쇠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가속
빅테크 이어 카드·증권 진출
시장 기대감에 관련주 강세

‘통화 주권 훼손’ 우려는 여전
인프라·신뢰 확보 없인 한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결제 인프라 확보, 신뢰도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커지는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네이퍼페이(Npay)와 협업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한다. 대형 은행과 ‘빅테크’ 기업에 이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도 참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통화 가치에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일정해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지난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포럼에 참여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공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ECB

80%를 넘겼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계속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주요한 경쟁력이자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마쳤고,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지니어스 법’을 오는 9일 하원에서 심의한다. 지니어스 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미국 국채나 달러 현금을 담보로 준비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내 달러의 지배력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근거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약했던 정부도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고조됐다.

앞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막대한 자금과 신용을 동원 가능한 은행권과 대규모의 결제 인프라를 확보한 핀테크 기업이 주도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문턱을 낮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카드업, 증권업, 게임업까지 확산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속했던 가상자산 업계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앞서 거래소들은 기존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한 발 물러나 시장 정착을 기다리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라면서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구체적 법안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반을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성공 위해 인프라·신뢰 확보해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연초 대비 수백 %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을 위한 과제도 여전하다. 주요 과제로는 스테이블 코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꼽힌다.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목표를 ‘통화 주권 수호’로 제시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해 금융 거래에 활용되기 시작한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국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막대한 유통량을 갖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프라도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원화 코인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초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5억~10억원의 자본금으로 제시했다.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문턱을 크게 낮춰, 기존 사업 진출이 유력했던 금융권 외에도 신규 사업자의 대규모 진입이 예상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지만,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낮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행량과 동등한 규모의 원화 현금·국채 등을 준비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소규모 코인은 은행·대기업 주도 코인보다 부도나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가능성에 거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나,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보다 달러·유로화 등 기축통화의 선호가 높아,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이 자본 유출을 오히려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사설 화폐가 유통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해도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특히 자본이동 통제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이나 미국보다 통화정책이 받는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간편결제 전쟁… 핀테크·카드사, 새 시장 변화에 ‘촉각’

금융권, 상표권 출원 등 대비 강화
카드사, 플랫폼 중심 타개책 모색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형성이 빨라지면서 핀테크사와 플랫폼사는 물론 은행과 카드사, 코인 거래소 등이 관련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편의성이 시장 선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상표권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카드사 중에선 신한카드가 최초로 상표권 출원에 나섰으며 토스도 상표 출원 대열에 합류했다. 앞서 두나무와 네이버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케이뱅크는 상표권 12건 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 등을 담보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결

제 수단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중단했다는 소식도 등장했다. 결국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우선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형성 초기에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사용자 확보하기 위해 결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결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드사와 핀테크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직까진 핀테크사에 유리한 지형이다.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결제 규모는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실물카드의 사용률은 감소세를 기록하

면서다.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출시하더라도 핀테크사에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플랫폼을 필두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중국 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실물카드를 제외한 모바일기기의 지급규모는 연간 5.5% 증가했다. 반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2.3% 감소했다. 전체 이용규모를 놓고 보더라도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 비중은 52.4%로 과반을 넘어섰다.

문제는 그동안 간편결제 시장 진출을 위한 카드업계의 자구책이 마땅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12월 카드업계는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페이(오픈카드 상호연동 서비스)’를 공개했다. A카드사 앱에 B카드사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이다. 카드사 간 연합을 통해 핀테크사와 경쟁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여전히 출시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연동에서 쓴맛을 본 카드업계는 이후 QR코드 통합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했다. 지난해 6월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하면서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비씨·NH농협카드)은 결제를 위한 QR코드를 국제 표준인 ‘EMVCo’로 통일했다. 가맹점도 공동으로 모집했다.

그러나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중 핀테크기업의 비중은 연간 2.6%포인트(p) 확대된 70.3%를 기록했으며 카드사 이용 비중은 29.7%로 축소됐다. 카드사 간 QR코드 규격을 통합한 것을 두고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일각에선 카드사와 핀테크사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카드



Chat GPT가 생성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모습’ 이미지.

업계는 금융결제 사업은 인프라 구축이 핵심 요소인 만큼 카드사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업계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카드사 또한 자체 플랫폼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 방침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업계 이슈로 부상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상용화한 시장의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STO 법제화 재시동… 증권사, 신사업 선점 ‘쟁걸음’

비상장·조각투자 제도권 진입 촉각
2030년 STO 시장 14조5000억 전망

토론회(STO) 법제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들도 신사업 먹거리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증권사들의 준비 작업도

재개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STO 법제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STO의 제도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이 예고된 것으로 보여진다.

박창윤 지엘리서치 연구원은 “최근 신탁수익증권을 비롯한 조각투자 관련 법제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는 STO 제도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STO에 대한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TO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드문 영역”이라

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STO 대응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50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4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두로 움직였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부터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과 토론회 동맹을 맺고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자체 STO 메인넷 개발을 완료했다.

하나증권도 2023년부터 디지털사업본부 산하에 디지털자산팀을 꾸려 토론회 등 디지털 자산을 전담으로 챙기고 있다. 같은 해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토론회 증권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최근 들어서는 NH투자증권도 ‘STO 비전 그룹’을 구성했으며, KB증권은 ‘ST 오너스’ 협의체를, 키움증권은 페어스퀘어랩과 ‘STO 기술 인프라 공동 구축’에 들어갔다.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도 ‘월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 ‘상법개정안’도 與野 합의 처리

野, 김민석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나경원 “李 정권 견제 싸움 지속”

상법개정안 與野 합의 통과에도
일각서 ‘자본시장 위축’ 우려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신(新)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으로, 김 후보자는 15·16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젊은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제3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지지 및 캠프 이적 등을 이후로 정치적 침체기를 겪다가 21·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비보다 많은 지출, 아빠 찬스 등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세비보다 6억원을 더 썼다며, 해명할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두번의 출판기념회, 경조사 축의금 및 조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투를 위해 전장을 옮길 것”이라며 “줄줄이 강행 예정된 이재명 정권 내각 인사청문회,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부실 정책과 정략적 악법을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도 재석 272인 찬성 220 반대

29 기권 23표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특수관계인 합산 명문화 등이 핵심이다.

여야는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득했

나,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장기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새 기업이 자주 나오고 경쟁 원리에 맞게 자본가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다. 유니콘 기업들, 건강하고 이득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상장하려고 하겠나. 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대기업은 법무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변호사도 있고 재정적

여력이 있어 큰 포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변호사 채용도 어렵다.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과학 실험은 잘못하면 지붕이 날라가거나 사람이 다치는데 사회경제적 실험은 국가성장에 심대한 위험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해보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피해를 봤나”라고 반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의 통과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출발점이고 일부분의 진보이자 개혁이다. 앞으로 더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가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추가 추진, 그리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함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아울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께서 상법 개정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배임죄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논의도 열린 자리에서 서로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대통령, ‘生라이브’ 기자회견전에도 막힘없는 답변

취임 한달 첫 기자회견

의정갈등·韓美 관세협상 등
사전조율 없는 질문 15개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으로 취임 100일쯤 지나야 첫 기자회견을 하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이 대통령은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기자들을 만난 셈이다. 이날 회견에선 사전 질문 조율도 없었고, 자리도 ‘사다리타기’로 정해서 임의로 배정받았다. 질문자를 미리 정해놓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생(生)라이브’ 기자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대통령에게 들어간 질문은 총 15개였다. 취임 한 달 소감, 검찰 개혁 시한, 한미 정상회담, 주 4.5일제, 한미 관세협상, 차별금지법, 한일관계, 의료대란 및 의정갈등, 부동산 정책, 지방균형 발전 등 다양하고도 민감한 질문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의정갈등 질문에는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나.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사태였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게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니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

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소비 승수 효과가 높고, 골목상권 등 지방 경제에 체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진작에 더해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나”라고 대답했다.

다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시 이걸 역지로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은 (또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외신기자에게서 대미(對美) 관세

협상 질문이 나오자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주 4.5일제’를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갈등·대립이 더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언급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

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지방 입장에서선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또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말미에 해당 발언이 ‘신도시를 더 만들지 않겠다’로 해석돼, 시장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는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대출 규제는 ‘맞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안철수 혁신위, ‘대선패배 백서 작성’으로 반성·쇄신 나서

작성 완료 후 혁신안 작성 전향
친한계 “고강도 인적 청산안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띄운 송부수,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을 위해 해쳐 나가야 할 길이 험준하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설이 흘러나오던 안철수 혁신위원장장은 “만약 전당대회가 8월에 마치게 된다면 신임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 임기가) 겹

치게 될 것”이라며 “전대 (출마)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혁신위 업무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혁신위 제1호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대통령 탄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직후 벌어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의 후보 교체 소동 등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반성과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혁신위는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보수 정당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겪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혁신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혁신안’을 포함해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 내에

선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도 받지 않았으면서, 안철수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다섯 가지의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을 거부했는데, 비대위 산하 조직의 장이 내놓은 혁신안을 받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굉장히 말랑말랑한 내용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안 위원장께서 말씀하

신 대로 고품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들겠다고 하면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안철수 혁신위의 혁신안에는 강도 높은 인적 청산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답아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1%대… ESG 경영 실효성 논란

의무고용률 절반도 못 채워
장애인 부담금만 매년 200억

국제 공시 기준만 맞추기 급급
직무개발·장기근속 대책 절실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의무 고용률인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융지주가 국제 표준에 따라 공시 기준을 고도화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 등 임직원 다양성 부문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내 7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BNK·iM·JB)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금융그룹의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1.1%였다. 지난해 평균인 1.0%에서 0.1%포인트(p) 올랐지만,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곳은 1.5%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한 KB금융이다. 지난해 2만6505명의 임직원 중 398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1.5%의 장애



주요 금융지주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인 3.1%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시스

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2만3114명의 임직원 가운데 19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0.86%였다. 이밖에 하나금융은 1.06%, 우리금융이 0.90% 수준에 머물렀다.

◆ 장애인 고용 미준수… 분담금만 ‘200억원’

장애인고용촉진법은 5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이 전체 고용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에 따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

데, 7개 지주는 매년 200억원(합계)이 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은 특히 미진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3876곳에 재직중인 433만 2000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은 13만 3100건(중증 장애인은 고용 2배로 산정)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3.07%다. 같은 해 금융권의 1.0%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업무 전문성이 높고 장시간의 대면 업무를 요구하는 만큼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 채용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각 금융지주는 매년 장애인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전체 임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상 각 금융그룹은 매년 재직 인원의 2% 안팎의 신규채용을 진행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해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법정 수준까지 단번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특히나 장시간의 대면 업무가 잦은 업종 특성상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도 다소 한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 ‘ESG 경영’ 강조하지만… 여전히 미흡

금융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 가치가 저평가 받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의무화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비롯해 임직원의 다양성 및 형평성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한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각 금융지주는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시 I SSB(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등 국제 기구의 공시 표준을 도입하는 등 ESG 경영 고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어, ESG 경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모든 직무에 일률적인 고용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업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고용률을 설정하고 기업의 자발적 고용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연구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개선한 후 적정 의무고용률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기업의 자발적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개발, 교육훈련, 인력풀 구축 등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정규직 전환이나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또한 주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I 등 신기술 살피 사업 실효성 높일 것”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정상혁 은행장, 직원 진정성 강조

“신사업 추진 시에는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면밀히 살피고, 달성 방안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촘촘한 목표에 대한 성과측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블루 캠퍼스에서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영전략회의는 그레이트 모멘텀(GREAT Momentum)을 중심으로 ▲게이트웨이(Gateway·업권 최고의 대면채널 구축) ▲리테일(Retail·리테일 솔루션 강화) ▲에코시스템(Ecosystem·플랫폼/제휴 성과 증강)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그룹사 시너지 강화) ▲트러스트(Trust·제로 리스크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영업방식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신한은행

내부통제) 등 경쟁력(Momentum) 확보 관점에서 신한은행의 하반기 경영 이슈 및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정 은행장은 “새로운 기술의 금융업 침투가 빨라지고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영환경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어

떻게 대응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금융의 모습’이란 주제로 외부 강연 및 은행의 AI 내재화 추진 현황을 공유했으며, 금융과 고객 전반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금융에 접목할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Help-up), 자산 가치를 높여(Value-up)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의 취지를 공유했다.

정 은행장은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도 영업 현장 직원들이 지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진정성 있는 고객관리”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출발점을 고객으로 삼고, 경계를 넘는 협업으로 고객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자”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최승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

영업현장·전략부서 경험 전문가
급변하는 시장 기민 대응 역량 강조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신임 대표이사로 최승영 전무를 선임하고 지난 1일 공식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최승영 대표이사(사진)는 1993년 한화생명(옛 대한생명)에 입사한 이래 30년간 보험영업 현장과 본사 전략부서를 두루 경험한 보험 전문가다. 지점장, 지역단장, 사업본부장 등 주요 기관장을 역임해 현장 경험을 쌓았다. 본사 보험



심사팀장, 고객지원팀장 등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전략 수립에도 탁월한 성과를 이뤘다. 지난 2024년 7월부터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본사 개인영업본부장을 맡아 FP조직의 역량 강화와 영업성과 제고를 주도하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특히 영업 현장과 본사 조직을 모두 경험한 균형 잡힌 경영인으로서 급변하

는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FP조직의 안정적 성장과 생산성 향상, 고객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의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장 밀착형 리더십을 바탕으로 FP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고객 관점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왼쪽 두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H농협금융

“전 계열사 통합 ESG 전략, 경쟁력 확보”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
이찬우 회장, 체계 다듬어 미래 준비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주재로 지주·계열사 ESG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협금융 ESG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ESG 정책동향 및 대응방향’, ‘농협금융 사회적 가치(SV) 측정 결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NH농협금융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새정부 출범 이후의 ESG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경영기반을 점

검한다.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이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지주, 은행, 생·손보, 증권 등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측정했던 사회적 가치를 올해 전 계열사로 확대했다. 그룹 차원의 통합 측정 및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찬우 회장은 “ESG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전 계열사가 함께 만드는 통합적 ESG전략을 통해 농협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대우건설, 2025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대우건설은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와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기 위해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EU의 지속가능 보고서 지침(CSRD)에서 발표한 이중 중대성 개념을 도입해 중대 이슈를 평가했다. 이

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산업안전보건 관리 ▲고객만족 및 품질 관리 ▲통합적 리스크 관리 등 10개의 이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10개의 중대 이슈는 기업과 사회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영향 중대성’과 ‘재무 중대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선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리더 역할·판단 중요… 미래 희망·비전 함께 노력하자”

권오갑 HD현대 회장

계열사 사장단 소집, 13명 참석
대내외 경영환경 대응 전략 논의

“지혜로운 위기극복 위해 힘 합치고
불황·위기 정확한 분석·대응을”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3일 주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대내외 경영환경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 중동전쟁,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는 권 회장과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 13명이 참석했다. 사장단은 회의에서 각 사의 핵심 경영구상을 공유하고 연초에 세웠던 사업 목표를 분석한



HD현대 권오갑 회장.

뒤 하반기 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진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즉시 시행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HD현대의 3대 핵심 축인 조선과 에너지, 건설기계 분야가 대내외적

악재로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조선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해운 운임 하락의 영향으로 발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주 실적도 급감한 상태다. HD현대의 알짜 계열사인 HD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정유·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실적이 줄어들면서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580

억원 기록했지만 전년대비 비교하면 58.2% 급감했다.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은 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8%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건설기계 부분의 경우 최근 HD현대 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하며 위기 해소에 나섰다. 양사 합병과 관련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권 회장은 “지금은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앞으로 다칠 불황과 위기에서 정확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외부 변수에 흔들려 너무 조급해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리더들의 역할과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의 인적·물

적 자원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소신을 갖고 자신 있게 행동해달라”면서 “직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사장들이 직접 현장에 자주 나가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우리가 눈앞의 실적에만 편승해 위기의 심각성을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통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HD현대는 각사별 경영현황설명회를 열어 회사가 직면한 위험과 그 영향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디자인·공간 등 개선… 7년전 가격 그대로”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국내 소비자 선호 ‘통풍시트’ 첫 도입
STLA 미디엄 기반, 차체 더욱 넓혀

“이 가격을 만들기위해 본사와 수차례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고 때로는 간절함을 담은 협박까지도 마다하지 않았 습니다.”

방실 스텐란티스코리아 대표가 3일 성수동에 위치한 문화예술공연장 캔디 성수에서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푸조는 침체된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준중형 SUV로 판매 반등은 물론 수입차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방 대표는 “성능은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모델”이라며 “2018년 2세대 푸조 3008 GT에 비해 디자인과 공간, 파워트레인이 개선됐지만 국내 출시 가격 그대로 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3008은 2년 전 유럽에 첫 출시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시기적으로 낮은 감은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푸조 3008 스마트하이브리드 외관(위)과 실내 모습. /양성운 기자

선호하는 통풍시트를 최초로 적용했고 장거리 주행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마사지 시트 기능 등을 추가했다.

3008에는 하이브리드 및 순수전기차를 아우르는 ‘STLA 미디엄’을 기반으로 설계돼 전장 90mm, 전고 20mm, 휠베

이스 55mm 등 차체가 더욱 넓어져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트렁크는 기본 588L로 뒷좌석 폴딩 시 최대 1663L로 늘어난다.

또 48V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 도심에서 전체 주행 시간의 약 50%를 전기 모드로 주행 가능하다. 전기모터 통합 설계로 시동·출발·저속 주행 시 전기 모드로 작동하며, 회생제동과 가속 보조 기능으로 높은 연료 효율과 정숙성을 제공한다. 엔진과 전기모터 합산 최고 145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14.6km/L를 달성했다.

방실 대표는 “올 상반기 판매할 수 있는 모델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했다”며 “3008 스마트하이브리드가 푸조의 구원투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통해 하반기 푸조의 판매량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조는 이번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출시에 앞서 4월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5월 ‘408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바 있다.

푸조 3008 스마트하이브리드 가격은 알튀르 4490만원, GT 49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LG화학, AI 활용 경력개발·성장기회 발굴

LG화학, 제3회 커리어 워크

신학철·권봉석 부회장 연사 참석
성공경험·경력개발 인사이트 공유

LG화학이 임직원의 경력개발과 성장 기회 발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LG화학은 오는 4일까지 ‘제3회 커리어 워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임직원이 스스로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성장 가능성을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커리어 워크는 ‘리더가 리더를 육성한다’는 LG화학의 인재육성원칙 아래 사내의 경영진과 리더들을 초청해 임직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강연과 멘토링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LG화학 고유의 육성 프로그램이다.

로그그램이다.

올해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권봉석 LG 부회장 등 자사 및 그룹사의 리더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고객경험부터 영업, 마케팅, 전략, 생산, R&D, A X(인공지능 전환)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체득한 성공 경험과 경력개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특히 이번 커리어 워크에는 AX시대에 맞춰 AI를 활용한 커리어 설계 및 육성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LG화학 임직원은 직무역량 진단을 통해 직무별 핵심 역량과 요구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AI를 활용해 경력개발 경로부터 미래 비즈니스 환경에 필요한 역량,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자원과 실천 계획 등을 탐색하고 수립한다.

/차현정 기자

가전제품 AS 품질평가

삼성전자서비스 국가서비스대상 ‘1위’

삼성전자서비스가 국내 주요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 부문에서 2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키며 ‘AS도 역시 삼성’이라는 평가를 입증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가전제품 AS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한국표준협회의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에서는 컴퓨터 및 휴대전화 AS 부문 1위를 각각 24년, 22년 연속으로 이어갔다.

서비스품질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부문에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유일한 사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품질 서비스, 고객 관점의 응대, 편리한 이용 경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전 조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혜민 기자 hyem@

LG전자 KS-SQI 2년연속 1위

LG전자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X) 기술을 앞세워 가전제품 A/S 분야 서비스 품질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가전제품 A/S 부문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수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해 평가하는 대표 지표다.

LG전자는 정확성, 전문성, 적극성, 사회적 가치 등 전 항목에서 업계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AI와 DX 기술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고객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응대가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AI 기반 솔루션은 LG전자 서비스 전 과정에 적용됐다. ‘AI 수리 어시스턴트’는 엔지니어와 대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리 결과도 요약해 안내해준다. /이혜민 기자

SK네트웍스, 상반기 주요성과 ‘나무엑스’

사내 구성원 의견수렴 성과 정리

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자회사를 통해 공개한 웰니스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를 꼽았다.

SK네트웍스는 사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SK네트웍스 및 자회사들의 상반기 의미있는 성과들을 정리해 사내방송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3일 밝혔다.

나무엑스는 SK네트웍스의 전략 방향성 아래 SK매직의 자원을 활용해 탄생한 브랜드로 SK매직의 기존 제품군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런칭 쇼케이스 자리에서 고정형 공기청정기 6대를 대체할 수 있는 ‘에어 솔루션’과 비접촉 방식으로 인간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바이탈 사인 체크’ 기능을 선보였으며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빠른 반

응 속도와 높은 보안성을 갖춰 참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SK스피드메이트의 정비 브랜드인 스피드메이트가 15년만에 브랜드 로고를 새롭게 바꾼 점도 눈에 띄는 성과로 꼽혔다. 강렬한 레드 컬러를 바탕으로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볼트와 너트를 형상화해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인 ‘s’, ‘e’를 디자인함으로써 ‘내차 정비의 처음과 끝’이란 슬로건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 밖에도 SK네트웍스 및 자회사들은 사업별로 수익 증대와 신제품 출시 등을 위해 상반기 구슬땀을 흘렸다. /차현정 기자 hyeon@

시몬스, 반려동물 침대 시장 공략… ‘업계 1위’ 이어간다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직접 제조 ‘N32 쪼꼬미’ 펫 3대 안심 인증 콘래드 서울 반려견 객실에 설치

침대업계 1위인 시몬스가 반려동물을 위한 침대 시장까지 넓히고 있다.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재료를 사용해 반려견, 반려묘 등이 쓰는 매트리스를 제작, 진정성까지 더하면서다.

최근엔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 있는 반려견 친화 객실에 제품이 들어가기도 했다.

3일 시몬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처음 선보인 반려동물 매트리스 ‘N32 쪼꼬미’는 시몬스 침대의 핵심인 경기 이전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직접 제조한다. ‘수면연구 R&D 센터’를



비건 펫 매트리스 ‘N32 쪼꼬미’

/시몬스

갖추고 총 1936가지의 품질관리 항목을 거쳐 하루 최대 1000조의 매트리스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몬스 팩토리움은 시몬스의 심장으로 불린다.

시몬스 관계자는 “N32 쪼꼬미 매트

리스는 아이슬란드 청정지역의 유기농 해조류 원료로 한 비건 소재 ‘아이슬란드 씨셀™’과 천연 식물성 소재로 통기성이 탁월한 ‘넌넨자가드’를 적용해 쾌적함을 극대화하고 반려동물의 체온 조절을 돕는 동시에 쾌적하고 안락한 휴

식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N32 쪼꼬미는 국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펫 세이프티(PS) 인증(한국애견협회) ▲비건 인증(비건표준인증원)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한국표준협회) 등 ‘펫 3대 안심 인증’까지 받기도 했다.

7단 레이어링 기술로 구성해 반려동물에게 꺼짐이 없는 최적의 안락함을 선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11cm 두께의 매트리스는 관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커버 형태로 제작한 ‘N32 쪼꼬미 슬리브’는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고, 발수 코팅 처리로 생활방수 기능까지 갖춰 관리가 쉽다. 논슬립 가공 처리한 바닥면은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측면에 있

는 슬리브 손잡이는 외출과 이동 시 편리하다.

크기는 스몰과 미디움 두가지, 색상은 베이지, 오렌지, 블루 3가지로 선택의 폭도 넓혔다.

이런 가운데 N32 쪼꼬미는 최근 힐튼 계열의 특급호텔인 ‘콘래드 서울’의 반려견 친화 전 객실에도 들어갔다.

호텔 침대의 대명사로 꼽히는 시몬스가 ‘반려동물 호텔 침대’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콘래드 서울은 올해 개관 13주년을 맞아 최근 434개 전 객실의 침대를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Beautyrest)’로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지난해 연말 281조의 매트리스를 먼저 바꿨고, 최근 나머지 매트리스들도 교체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통신사 혁신 서비스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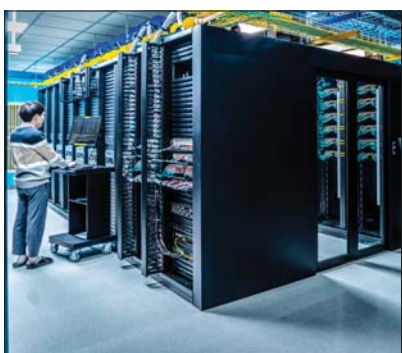
SKT, 초거대 LLM ‘에이닷 엑스 4.0’ 선택

표준 모델·경량 모델 2종
국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SK텔레콤이 오픈 AI의 ‘GPT-4o’보다 한국어 처리 능력이 30% 이상 높은 새로운 초거대 언어모델(LLM)인 ‘A.X(에이닷엑스)4.0’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어 처리 능력을 가진 한국어 특화 LLM인 A.X 4.0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세계적인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를 통해 A.X 4.0의 표준 모델과 경량 모델 2종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A.X 4.0은 현존 대



A.X 4.0의 대규모 학습(Continual Pre-Training, CPT)을 진행한 SK텔레콤 자체 구축 슈퍼컴퓨터 ‘타이탄’

/SK텔레콤

규모 언어 모델(LLM) 중에서도 최상급의 한국어 처리 효율성은 물론 데이터 보안을 고려한 설계, 로컬 환경에서의 운영 가능성 등이 강점이다. 오픈소스 모델인 Qwen2.5에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한다.

SK텔레콤은 A.X 4.0의 토큰라이저를 자체 설계·적용해 높은 수준의 한국어 처리 역량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자체 테스트 결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했을 때 GPT-4o보다 A.X 4.0이 약 33%가량 높은 토큰 효율을 기록하며, 다른 LLM 대비 높은 정보 처리용량에 비용 절감까지 가능한 경제성을 갖췄다.

SK텔레콤은 A.X4.0 에이닷 통화 요약에 적용해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자사는 물론 SK그룹 내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T, 자체 개발 LLM ‘민:음 2.0’ 오픈소스 공개

코-소버린 벤치마크 최고수준 점수

KT가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LLM) ‘민:음 2.0’을 오픈소스로 3일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은 ▲115억 파라미터 규모의 ‘민:음 2.0 기본형(Base)’ ▲23억 파라미터 규모의 ‘민:음 2.0 미니’ 2종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한다. 민:음 2.0의 미니는

기본형 모델에서 증류한 지식을 학습한 소형 모델이다.

KT는 민:음 모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사회 등의 전문 분야에서 기존의 국내외 주요 모델을 상회하는 이해력과 생성 성능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KT와 고려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한국어 AI 역량 평가 지표인 ‘코-소버린’ 벤치마크에서 유사 규모의 국

내 기성 모델을 비롯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오픈소스 모델을 능가하는 점수를 기록했다.

국산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도 협력했다. 프렌들리AI와 함께 사용자가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도 허깅페이스를 통해 무료로 편리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환경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LG U+, ‘알닷’ 로밍 신청 페이지 개설

알뜰폰 로밍 편의성 개선

LG유플러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알뜰폰 전용 ‘알닷’ 내 로밍 신청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U+알뜰폰 고객은 알닷 내 로밍 신청 전용 페이지에서 로밍패스, 제도 프리미엄, 하루 데이터 로밍 등 LG유플러스 로밍 상품을 셀프로 가입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로밍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확대됐다.

해외 현지에서 알닷을 통해 로밍을 이용하는 동안 실시간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가입 이력 열람과 영수증 발급 신청도 할 수 있다.

삼성SDS, ‘SAP 프리미엄 서플라이어’ 선정

SCP 기반 ERP 전환 사업 본격화

삼성SDS가 국내 최초로 ‘RISE 위드 SAP 프리미엄 서플라이어’로 선정됐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과 크리스티안 클라인 SAP CEO는 2일(현지 시간) 독일 발도르프에 위치한 SAP 본사에서 ‘RISE 위드 SAP 프리미엄 서플라이어’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삼성SDS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에서 SAP ERP(기업자원관리) 컨설팅·구축·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SDS는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인프라(CSP), 클라우드 구축·운영(MSP), 보안 서비스는 물론 공공 부문 보안 인증(CSAP)을 취득하는 등의 역량을 인정받아 해당 자격을 획득했다고 회사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과 크리스티안 클라인 SAP CEO가 2일(현지 시간) 독일 SAP 본사에서 ‘RISE with SAP 프리미엄 서플라이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SDS

측은 설명했다.

삼성SDS는 클라우드 기반 ERP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금융 분야 고객을 대상으로 SCP 기반 ERP 전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LIG넥스원, 국방 자율시스템 연구센터 운영

KAIST 운영협력 업무협약 체결

LIG넥스원과 KAIST가 대한민국 국방 R&D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LIG넥스원은 KAIST와 ‘국방 자율시스템 연구센터’ 운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국방 분야 자율시스템 및 AI·체계 기술 공동

연구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ITRC(대학ICT연구센터) 사업과 연계한 연구센터 운영 ▲전문 인력 양성·교류 프로그램 등을 긴밀히 추진한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보는 “LIG넥스원의 무인·미사일 체계 개발 역량과 KAIST의 첨단 AI 연구력이 결합해 미래 전장을 혁신할 것”이라며 “고도화된 국방 솔루션을 조기에 실증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넷마블 ‘스톤에이지’ 신작 공개

넷마블이 자체 IP ‘스톤에이지’의 신작 ‘스톤에이지: 펫월드’를 공개하며 글로벌 공략에 나선다.

넷마블은 3일 대표 자체 IP ‘스톤에이지’의 최신작 ‘스톤에이지: 펫월드’를 공개하고 글로벌 출시를 예고했다.

‘스톤에이지: 펫월드’는 원작 고유의 감성과 육성 재미를 계승하면서도, 최신 트렌드에 맞춘 간편하고 직관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용자는 6명의 조련사와 18종의 펫을 조합해 최대 24개 덱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사전등록이 진행 중이며, 보상으로 탑승펫 ‘카키’ 등이 제공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www.dseshop.co.kr


동성제약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림,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케어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
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W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 | 구입 문의 **080-854-0082**

크로스 플레이로 글로벌 유저 접근성 확대

엔씨소프트

아이온2

원작 정통성 계승하면서 핵심콘텐츠 재해석

엔씨소프트는 하반기 대표작으로 ‘아이온2’를 출시할 계획이다. 원작 ‘아이온’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비행 전투, 진영 전투, 농타깃팅 전투 방식 등 핵심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주목된다.

이 게임은 언리얼 엔진5 기반의 고품질 그래픽과 세분화된 커스터마이징, 광활한 필드 구성 등을 앞세워 완성도를 높였다. 전작과 달리 모바일과 PC를 넘나드는 크로스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며, 글로벌 유저들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내부 포커스그룹 테스트에서는 캐릭터 조작감과 전투 템포, 비주얼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어졌다.

출시는 올해 9월 한국과 대만을 시작으로 예정돼 있으며, 내년 1분기 중 북미·유럽 지역까지 순차 확대를 계획 중이다. 현재 글로벌 서버 안정화와 CBT 후반 테스트를 병행 중이다. 특히 엔씨는 ‘TL’, ‘블레이드앤소울2’ 등에



엔씨소프트 아이온2.

/엔씨소프트

서 발생한 수익모델 과잉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아이온2에서는 유료화 정책과 콘텐츠 공급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아이온2는 글로벌 시장을 고려해 설계된 작품”이라며 “단순 후속작을 넘어, MMORPG 장르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겠다는 포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솔 기반 MMORPG로 퍼블리싱 구조전환

카카오게임즈

크로노 오디세이

개발사 엔픽셀과 신규 IP 바탕으로 공동제작

카카오게임즈는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크로노 오디세이’를 내세운다. 개발사 엔픽셀과 공동 제작 중인 이 게임은 완전 신규 IP를 바탕으로 한 콘솔 기반 MMORPG다. ‘시간’이라는 테마를 축으로 전투와 공간 이동, 파티 구성 등을 다채롭게 구현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플랫폼은 PS5, 엑스박스 시리즈 X, PC를 아우르며 글로벌 콘솔 이용자까지 겨냥하는 멀티플랫폼 전략이 특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6월 글로벌 비공개 베타테스트(CBT)를 마쳤고, 북미 지역에서 특히 높은 관심을 받았다. CBT에서는 전투 시스템의 몰입감, 대형 보스전의 연출, 환경 시뮬레이션 효과 등이 호평을 받았다.

정식 출시 일정은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카카오게임즈는 콘솔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북미 현지법인을 통해 퍼블리싱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크로노 오디세이를 통해 자사 포트폴리오를 모바일 중심에서 콘솔 중심



카카오게임즈 크로노오디세이.

/카카오게임즈

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이외에도 ‘에버소울’ 글로벌 버전 확장, ‘아키월드’ 대형 업데이트를 병행하며 플랫폼별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에 나섰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콘솔 기반 MMORPG는 도전적인 프로젝트지만, 향후 퍼블리싱 구조 전환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만의 신작... 글로벌 AAA시장 ‘정조준’

펄어비스

붉은사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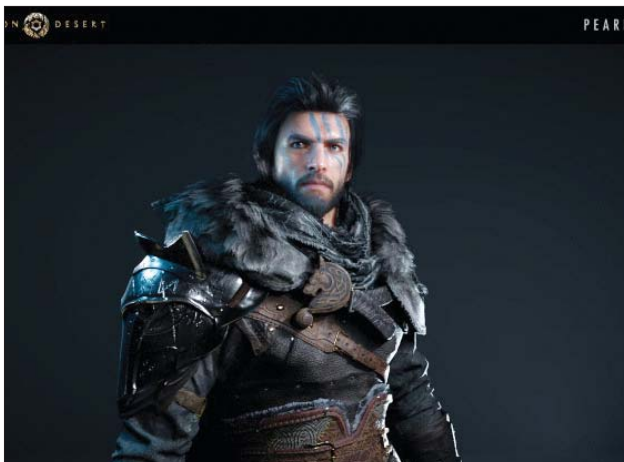
다양한 유저 확보... 차별화된 시장 포지셔닝

펄어비스는 장기 개발 프로젝트였던 ‘붉은사막’은 올해 12월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검은사막’ 이후 약 5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를 표방하며 콘솔·PC 기반의 AAA(트리플A, 다른 게임 계층보다 개발 및 마케팅 예산이 더 높은 중형 또는 대형 퍼블리셔가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게임) 게임 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붉은사막은 시네마틱한 연출과 몰입도 높은 내러티브, 캐릭터 중심 전투, 탐험 요소가 복합된 하이브리드 구조를 택했다. 특히 언리얼 엔진4의 커스터마이징 버전을 통해 물리 기반 타격감, 환경 상호작용, 반응형 퀘스트 등 기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주요 캐릭터는 각각 독립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 유저가 하나의 ‘전사’가 아닌 ‘서사’ 속 주체로 몰입할 수 있게 했다.

붉은사막은 지난해 게임스컴, TGA, 올해 GDC 등을 통해 데모 버전을 선공개했으며, 현재는 퍼스트파티 플랫폼 사들과의 출시 일정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특히 미국과



펄어비스 붉은사막.

/펄어비스

유럽 현지 리뷰어 대상 체험 세션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북미 중심 마케팅 전략도 전개 중이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으로 구축한 ‘하드코어 유저층’ 외에도 액션 어드벤처 장르에 익숙한 콘솔 중심 유저까지 확보함으로써, 타사와의 차별화된 시장 포지셔닝을 예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붉은사막은 단순히 MMORPG 팬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글로벌 AAA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콘텐츠”라며 “기술력과 내러티브를 동시에 담은 펄어비스의 대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업 중심 재정비 하반기부터 대형

블록체인·메타버스 대신 정통 게임에 집중하는 국내 게임사들(이하 ‘본업 중심’)은 하반기부터 실적 반등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본업 중심 게임사들은 하반기에 집중 투입하며 실적 반등과 본업 회귀에 본격 나서고 있다. 확장 전략에 주력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다시 게임 본연의 재미와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MMORPG 장르가 다시 주요 캐시카우로 주목받고 있다. 다수의 작품이 사전 테스트, 예약 판매 등 플랫폼 다변화를 통해 시장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지만, 일단 성공하면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려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장르 다양성·글로벌 확장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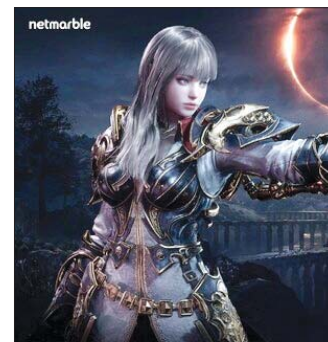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등 6종

게임별로 지역 타깃 유저군 정밀분석해 마케팅

넷마블은 올해 하반기 총 6종의 신작을 잇따라 출시하며 대규모 라인업 공세를 펼친다. 주요 타이틀로는 ‘킹 오브 파이터 AFK’, ‘뱀피르’, ‘몬스터 길들이기: 스타 다이브’,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프로젝트 SOL’, ‘나 혼자만 레벨업: 오버드라이브’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나 혼자만 레벨업: 오버드라이브’는 글로벌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웹툰 IP 기반 액션 RPG로, 북미와 유럽 등 서구권 타깃 시장에서 특히 높은 기대감을 형



넷마블 뱀피르.

성하고 있다.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고품질 그래픽과 템포의 액션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의 전투 경험을 구현한다는 거

이 나선 게임업계 ! 신작 쏟아진다

사들이 하반기 대형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신작을 최근 수년간 게임 외 영역인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사업 과 완성도를 앞세운 정통 작품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이 는 가운데, 각사는 고정 유저층 확보와 글로벌 확장을 위한 장 신작 혹은 출시일 공개 단계에 도달했으며, 콘솔과 PC, 모바일 등 다. 업계 관계자는 “MMORPG는 초기 개발비 부담은 크지만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본업 중심의 재정비를 통해 실적



/유투이미지

으로 다변화된 유저니즈 충족



/넷마블

활용한 고사양 그래픽과 빠른 모바일 환경에서도 콘솔 수준 대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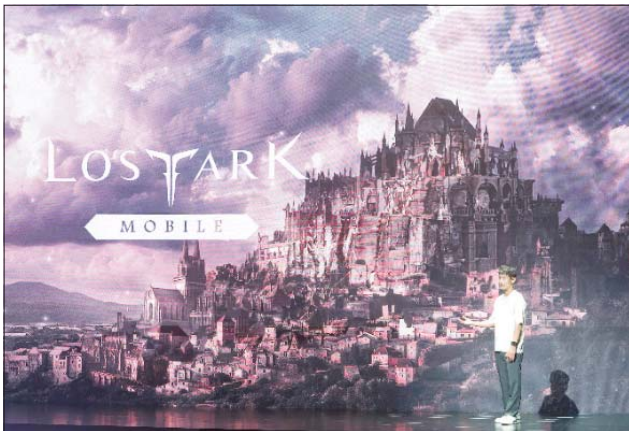
또한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은 오픈월드 기반의 3D 액션 RPG로, 기존 2D 기반의 원작 팬층뿐 아니라 캐릭터 육성 중심의 유저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넷마블은 각 게임별로 지역 타깃 유저군을 정밀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크로스 플랫폼 대응 전략과 스트리밍 중심의 홍보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한다. 일부 타이틀은 이미 글로벌 열리 엑세스나 베타 서비스 중이며, 사전 예약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하반기 라인업은 단순 수량 확보가 아닌, 장르 다양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조합”이라며 “다변화된 유저 니즈를 충족하고 실적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팬층부터 신규 모바일 유저까지 공략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모바일

비공개 테스트·대규모 쇼케이스로 호응 유도

스마일게이트는 자사의 대표작 ‘로스트아크’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신작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비공개 테스트와 대규모 쇼케이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출시 전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오프라인 체험 행사에서는 일부 유저에게 개발 중인 시연 빌드가 공개됐다. 당시 참석자들은 원작과 유사한 전투 템포와 그래픽 완성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UI/UX(사용자환경/사용자경험)와 터치 기반 조작의 편의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원작의 시네마틱 연출과 광범위한 콘텐츠를 유지하되, 모바일에 맞춰 플레이 템포와 UI 구성, 전투 컨트롤 시스템을 재설계한 독립형 게임으로 개



이정환 로스트아크 모바일 디렉터가 지난 18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게임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발 중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를 통해 PC 기반의 기존 팬층은 물론, 신규 모바일 유저 유입을 동시에 노린다. 회사 관계자는 “단순한 포팅이 아닌 ‘재해석된 로스트아크’로 모바일 RPG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원작 세계관을 확장함으로써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고, IP 생태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주얼 액션·슈팅 장르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넥슨 슈퍼바이브·아크 레이더스

글로벌 라이브 운영 경험 전면 반영

넥슨은 올해 하반기 ‘슈퍼바이브’와 ‘아크 레이더스’ 두 타이틀을 통해 캐주얼 액션과 슈팅 장르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는 기존 MMORPG와 라이브 서비스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장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슈퍼바이브’는 오는 7월 24일 글로벌 정식 출시된다. 실시간 멀티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팀 액션 게임으로, 빠른 템포와 캐주얼한 그래픽, 전략적 협동 요소가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열리 엑세스 테스트에서 서버 안정성과 매칭 시스템, 파티 구성이 호평을 받았다. 10월 말에는 PvPvE 기반의 협동 슈팅게임 ‘아크 레이더스’가 출시된다. 이 게임은 오픈월드 환경에서 AI 적군과 유저 간 전투가 병행되는 독특한 전투 구조를 도입했으며, 물리 기반 액션과 루팅 시스템, 동적 날씨 변화 등을 담



넥슨, 신작 MOBA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오는 24일 정식 출시 예고.

/넥슨

재해 몰입감을 높였다. 넥슨은 이들 신작을 통해 ‘퍼스트 디센던트’와 ‘메일드 엑스퍼트’에서 축적한 글로벌 라이브 운영 경험을 전면 반영한다. 특히 북미·유럽 유저의 플레이 성향 분석을 기반으로, 서버 안정성과 유저 커뮤니티 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 전략이다.

유저 편의성 강화해 P2E게임 글로벌 확산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국내 정식출시 앞뒤… 글로벌 버전은 사전예약 진행

위메이드는 하반기 중 MMORPG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글로벌 버전을 출시한다. 이 게임은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다크 판타지 세계관과, 블록체인 기반 보상 시스템이 결합된 P2E 게임으로 기획됐다. 국내 정식 출시는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버전은 현재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기반으로, 아이템 거래와 캐릭터 성장 요소에 암호화폐 보상 구조를 탑재해 유저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위메이드는 ‘미드나잇 워커스’, ‘라이즈 오브 스타즈’ 등 콘솔·PC 기반 신작 2종도 연내 열리 엑세스 형태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즌2 업데이트 대표 이미지.

/위메이드

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과 다양한 플랫폼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 유저 편의성과 보상 구조의 정합성을 강화해 기존의 P2E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콘텐츠의 완성도와 IP 확장성을 강화하면서, 다시금 정통 MMORPG와 대형 신작 중심의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다. 과거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 신사업 위주로 이탈했던 자원을 다시 게임 본연의 재미와 지속 가능한 라이브 서비스 체계로 회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 실적 회복을 넘어, 글로벌 시장 재진입과 사용자 충성도 회복이라는 중장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주요 신작 성과는, 각 게임사의 재무 안정성뿐 아니라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oul.co.kr

삼성, ‘7만전자’ 복귀 기대 커져 美정책·AI수요 훈풍에 주가 반등

美 세액공제 통과에 투자심리 회복
마이크론 호실적 반도체 업황 반영
AI·HBM 수요 확대에 기대감 커져
미중 공급망 리스크 완화세 지속

7월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6% 뛰며 ‘7만전자(삼성전자주가 7만원)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2분기 성적표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도 예상 밖 선전이다.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지난 1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기대 등의 국내외 호재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사자’에 나선 영향이다.

3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4.93% 오른 6만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400원(0.67%) 오른 6만200원에 마감한 뒤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 상원이 지난 1일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 법안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공장 건설 시 세액 공제를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도체법은 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390억 달러(약 53조 원)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750억 달러(약 102조 원)의 대출도 지원하는데,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받았다.

글로벌 리스크도 줄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희토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공급망 갈등을 봉합하는데 서명했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가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황 전망도 장밋빛이다. 하반기 D램 시장은 HBM을 필두로 견조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업계의 ‘실적 바로미터’로 불리는 마이크론은 최근 3분기(3~5월)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HBM을 포함한 D램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분기(6~8월)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마이크론은 4분기 매출이 10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 98억8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실적이다. 시장 예상치는 매출 75조8000억원, 영업이익 6조100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의

논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매출액 72조9000억원, 영업이익 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치 대비 약 26% 낮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이 5조원대 초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고대역폭메모리(HBM)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낸드는 전 분기 대비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실적부진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겠으나, 이미 투자자들의 인식이 주가에 반영되어있어 추가적인 부정적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HBM3e 12단의 주요 고객사 공급 기대감이 상존하며 파운드리 고객 확보에 따른 하반기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ELS 발행 급증… 코스피200 비중 70% 돌파

금리하락·지수 기대 투자심리 회복
지수형 ELS 53% 가장 높은 비중
낙인 발생 ELS 24% 비중 7%p 상승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며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상환액은 1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3월 말 기준 잔액은 84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원 증가했다.

특히 ELS 발행액은 1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원(24.1%)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과 해외 주가지수 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투자 수요가 회복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수형 ELS가 전체 발행의 5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발행액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종목형 ELS는 4조2000억원으로 비중은 42.2%로 나타났다. 기초자산 개수 기준으로는 1개 종목에 투자하는 단일형 상품이 절반가까이를 차지했다.

기초자산별로는 코스피200(4조1000억원), S&P500(3조7000억원), 유

로스톡스50(3조4000억원), 닷케이225(1조4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코스피200의 비중은 홍콩H지수 사태 이후 급증해, 2023년 1분기 52.0%에서 2024년 67.6%, 올해 70.9%로 지속 상승했다.

ELS 발행 잔액은 5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손실 가능 구간에 진입한 낙인(Knock-In) 발생 ELS는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이들 상품은 전체 ELS 발행의 23.9%를 차지하며, 비중도 6.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원금지급형 비중은 51.7%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소환조사 (하이브 의장)

금감원, 사모펀드 지분 매각 과정 확인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총수급 인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후 처음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달 29일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이들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 사실을 하이브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해당 거래를 통해 정산받은 이익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방 의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 및 검찰 고발 여부를 회부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구어체 AI 분석 기술로 글로벌 기업 도약”

코스닥 CEO 인터뷰

배성환 뉴엔AI 대표

“인공지능(AI)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 문제 해결의 도구다. 뉴엔AI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AI를 제공한다.”

배성환 뉴엔AI 대표는 최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년간 축적한 비정형 구어체 AI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별 특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AI 분석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뉴엔AI는 고객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분석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이후 국내 최초로 구어체 텍스트 분석 기반의 맞춤형 AI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배 대표는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 시절 사람들의 대화가 대부분 은어나 구어체로 이뤄지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런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면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텍스트 분석 독자 기술 확보
산업별 특화 AI 서비스 고도화 주력
SaaS·API로 맞춤형 데이터 제공
다국어 서비스로 해외 시장 공략

회사의 핵심 제품군은 ‘쿼타(Quetta)’ 브랜드로 대표되는 AI 분석 서비스다. ▲고객 맞춤형 분석 플랫폼 ‘Quetta Enterprise’ ▲업종 범용형 SaaS 모델인 ‘Quetta Service’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Quetta Data’로 구성된다.

기업별 맞춤 솔루션인 Quetta Enterprise는 시장 분석, 브랜드 평판,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SaaS 형태의 Quetta Service는 로그인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K-뷰티나 유통업계처럼 도메인이 명확한 산업에 적합하다. Quetta Data는 기업의 자체 AI 시스템에 연동 가능한 정제된 데이터를 API 형



태로 제공한다.

뉴엔AI의 강점은 구어체 중심의 비정형 텍스트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독자 기술력이다. 배 대표는 “자연어처리(NLP) 기술은 오타자, 은어, 속어, 방언, 신조어 등 불규칙한 데이터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며 “900여개의 분석모델과 550건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 일평균 2200만건의 데이터 수집 역량을 통해 산업별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뉴엔AI는 산업별 수직 계열화된 AI 분석 SaaS를 확대하고 다국어 서비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배 대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 분석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기술뿐 아니라 고객경험 중심의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현재는 문어체 분석이 주류이지만, 구어체 시장이 커질 경우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다”며 “구어체 NLP는 언어의 변화에 민감하고, 산업별 맥락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진입장벽 때문에 향후 네이바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뉴엔AI와 협력하거나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끝으로 “뉴엔AI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한화운용, DB 퇴직연금 사모펀드 1조 돌파

1년 만에 13배 빠른 성장세
수익률 제고 실적배당 주목

한화자산운용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위탁운용 사모펀드 시장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리며 총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자사의 DB 퇴직연금 위탁운용 사모펀드 총 순자산 규모가 지난 달 기준 1조224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사업 본격화 이후 약 9배 성장한 수치다. 같은 기간 DB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시장 전체가 약 60%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시장 평균보다 13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사가 DB 적립금을 위탁받으면 실적배당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DB 퇴직

연금 시장은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DB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4.04%로, DC형(5.18%)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5.86%)보다 낮았다. DB 퇴직연금 운용사 10곳 중 9곳이 적립금 90% 이상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화자산운용은 실적배당형 투자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컨설팅 역량으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용 전략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강화 등으로 고객 신뢰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마케팅부문장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지 못할 경우 정부나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HOOKKA HOOKKA STUDIO®

(DESK)

PAPER
BOX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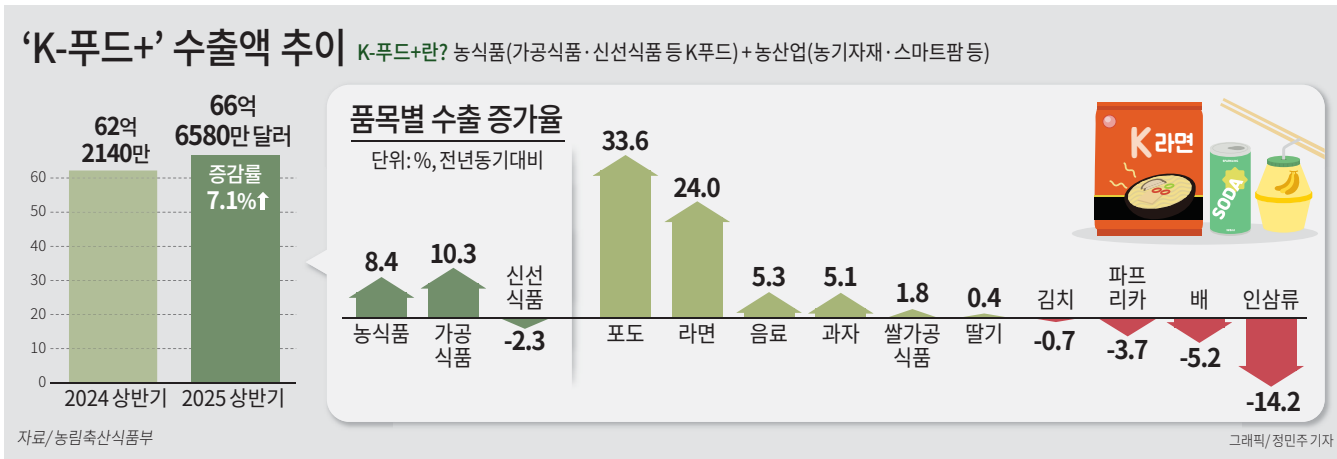
상반기 ‘K-푸드+’ 수출 7.1% ↑… 연간 140억 弗 달성 올인

농식품부, 상반기 수출 66.7억 弗
농식품은 8.4% 증가한 61.6억 弗
라면·아이스크림 등 증가율 20%대
송미령 장관 “리스크 대응 적극지원”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힘을 한데 모은 결과라며,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수출 위축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일 2025년 K-푸드+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푸드+란 농식품(가공식품·신선식품 등 K-푸드)에 농산업(농기자재·스마트팜·동물용의약품 등)을 더한 개념이다.

농식품은 51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북미(+24.3%) 시장에서 가장 컸고 이어



유럽연합·영국(+23.9%), 걸프협력회의(+17.8%), 독립국가연합·몽골(+9.0%) 순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9.8%, 7.7%였다.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였다. 특히 소스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 및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늘었다.

또 유자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고 미국, 일본, EU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대형 유통매장 내 입점이 잇따르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늘어났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3.1% 증가했다.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올해 5월 말 누계기준 1년 전보다 51.0% 증가했다. 라이신, 화학제제, 의도기기 품목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무려 160% 늘어났다. 농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22.4% 성

장한 4억9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약은 중국, 베트남, 브라질에서 성장세가 컸다.

송미령 장관은 “미 상호관세, 환율 등 녹록지 않은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반기 견조한 K-푸드+ 수출 실적을 발판으로,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목표가 달성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의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1월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월에는 수출확대 세부 전략을 발표했고, 4월부터는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해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환경부, 2600억 녹색인프라 수출펀드 조성

정부 1500억, 민간이 1092억 투자
5년간 3000억 출자, 3개 펀드 계획

올해 정부 주도 펀드인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조성됐다.

환경부는 2592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가 조성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58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 조성에 이어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 녹색 시장이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녹색산업 분야에서의 해외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

로 해당 펀드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호 펀드는 정부가 15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1092억 원을 투자해 마련됐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 기업이 수주하는 탄소 감축, 순환 경제, 물 산업 등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해 국내 기업의 수주 및 수출을 활성화한다.

지난해에는 1호 사업으로 친환경 압모니아 생산 시설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다. 연내 1000억 원 투자 승인을 목표로 투자사업을 발굴 중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 원을 유치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3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조성된 펀드에 이어 연내에 9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도 순차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포항에 1호 ‘푸드테크 연구센터’ 착공

농식품부, 차세대 식품로봇 개발
올해 5개분야 연구지원센터 선정
식품로봇 등 3개분야 내년 완공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경북 포항에서 차세대 식품로봇의 개발을 맡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착공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이후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시작한 이래 첫 착공식이며 내년 준공이 목표다.

이 센터는 식품 제조·외식업계에서 이용되는 조리 로봇, 서빙 로봇 등의 식품로봇 개발과 실증연구 지원을 위한 시설이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공동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 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이다. 산·관·학 협력을 통한 중소식품 및 외식업체의 푸

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먼저 3개 분야는 2026년 완공이 목표다. 식물기반식품(전북 익산)과 식품로봇(경북 포항), 식품업사이클링(전남 나주)이다. 2개 분야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개인맞춤형식품(경기 과천, 강원 춘천)과 세포배양식품(경북 의성)이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업사이클링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친환경포장 ▲식품 로봇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배드민턴화 ‘미끄럼방지 성능’ 천차만별

한국소비자원, 6개 브랜드 종합평가

배드민턴화 브랜드별로 미끄럼 방지나 충격 흡수 등 기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가와사키(K-086), 미즈노(CYCLONE SPEED 4),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6개 제품이다.

배드민턴화의 핵심 기능인 미끄럼 방지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다. 실내 마룻바닥에서의 미끄럼 방지 성능은 가와사키(K-086),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운동 중 발목 관절 부담을 줄여주는 성능에서는 미즈노(CYCLONE SPEE

D4) 제품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착지 시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쿠셔닝 성능은 가와사키, 비트로, 빅터, 아식스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배드민턴 동호인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제 착용 만족도 평가에서는 아식스(RIVRE CF) 제품이 4.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비트로(FIORD)와 요넥스(STRIDER FLOW) 제품이 4.1점으로 뒤를 이었다.

가격은 요넥스(STRIDER FLOW)가 6만99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비트로(FIORD)가 12만9000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별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무게는 미즈노(CYCLONE SPEED 4)가 295g으로 가장 가벼웠고, 요넥스(STRIDER FLOW)가 323g으로 가장 무거웠다.

신발의 튼튼함을 나타내는 접착 강도는 가와사키(K-086) 제품이 가장 우수했으며, 걸창의 마모 저항성은 비트로(FIORD), 빅터(A170II), 가와사키(K-086) 순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울시, 청년에 창업 기회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모집

서울시는 청년에게 창업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학지역을 활성화하는 ‘서울캠퍼스타운’의 2026년 참여대학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13개 대학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단독 제안 또는 대학 간, 대학·자치구 간 공동 제안(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2017년 시작한 서울캠퍼스타운은 서울시와 대학, 자치구가 함께 청년 창업가에게 공간 제공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9년간 서울 소재 39개 대학이 참여해 총 3321팀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등 1만3954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 참여 가능하며, 사이버 대학과 기술대학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학은 2026년 1월부터 2년간 사업을 시작하며, 최대 4년간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혁신 기반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고품질·혼합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오세훈 시장, 오스트리아 방문 방안 모색

서울시가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혼합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 ▲고품질 설계 ▲유휴부지 활용 등 서울 시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고급화, 소셜믹스 등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했다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오후(현지시간) 빈 중앙역 인근 ‘존벤트피어텔(Sonnwendviertel)’, 2일에는 철도시설·부지를 재개발한 노르트반호프(Nordbahnhof) 지구에서 도시 내 대규모 유휴공간을 확



용한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확인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서울에서는 공공주택 총 7만4000호가 공급됐고 연1만8000호 이상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보다 획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출장에 다양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사례를 찾았다.

존벤트피어텔에서는 중앙역 남측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한 ‘존벤트피어텔 C.01단지’를 찾아 신혼부부, 청년·어르신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 시설을 둘러봤다.

/이현진 기자

빠른배송 이어 무료 반품·교환… 유통가, 소비자 ‘쟁탈전’

네이버N배송 무료 반품·교환 이후
3개월 평균 거래액 20% 가량 증가

쿠팡 명품 플랫폼 파페치 맞손
‘알렉스’ 고객 무료 배송·반품
롯데마트 한시적 ‘무료배송’

유통업체가 빠른 배송에 이어 무료 반품·배송 카드를 꺼내면서 소비자 잡기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소비자 유치를 위해 무료 반품 및 배송 서비스를 잇달아 개시했다. 쿠팡커머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빠른 배송 시장 포화 및 경기 침체로 소비층들의 구매 여력이 줄자 새로운 고객 유치 전략을 꺼내 든 것이다.

쿠팡커머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인 반면, 최근 이커머스 이용자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394만 9000여 명으로 전달 대비 0.4% 감소했다. 이 외에도 네이버플러스스토어(-32.2%), 11번가(-11.9%), 옥션(-9.5%), G마켓(-8.0%), 테무(-6.7%) 등 주요 이커머스



서울 시내 한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를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줄었다.

빠른 배송 서비스 시장이 포화되면서, 새로운 고객 유치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빠른 배송 서비스는 이제 모두가 제공하고 있는 만큼, 고객을 유치하는 데 더 이상 차별점이 없다”며 “이에 큰 기업들이 무료 배송·무료 반품 및 교환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고객 유치 전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를 ‘네이버N배송’으로 리브랜딩 하면

서, 지난 3월부터 무료 반품 및 교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배송 서비스도 진행한다. 네이버 측은 무료 반품 교환 정책을 시행한 이후, 정책 시행 대상이 되는 판매자들의 석 달 평균 거래액이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20%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무료 배송 및 교환 서비스를 실시한 쿠팡 역시 최근 배송 및 반품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나섰다. 최근 명품 플랫폼 파페치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쿠팡의 럭셔리 뷰티·패션 버티컬 플랫폼인 ‘알렉스’는 구매 고객을 대상

으로 전 상품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반품 혜택도 제공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롯데마트가 한시적으로 무료배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내달까지 전국 135여 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절기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료 배달 최소 기준은 수박 1통, 4kg 이상 쌀 1포, 24통로 구성된 화장지 한 묶음, 3kg 이상 세탁세제류 1개, 생수 1묶음이다.

롯데마트는 배달 가능 권역도 확대했다. 춘천점과 은마점 등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배달 가능 권역을 1km 이상 확대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객의 배달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에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료 반품 및 무료 배송 등의 서비스 실시는 지금 같은 불경기에 고객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다만, 무료 배송 및 반품 서비스는 기업 입장에서 그만큼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이마트 美 현지판매 1위 맥주 ‘모델로 에스페셜’ 선택

이마트가 미국 현지 판매액 1위 맥주 ‘모델로 에스페셜(사진)’을 유통업체 최초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모델로 에스페셜(이하 모델로)은 멕시코를 대표하는 고급 맥주로, 짙은 황금색과 풍성한 거품이 특징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모델로 맥주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액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내 인기 맥주 반열에 올랐다.

변화하는 주류 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가 모델로 맥주 단독 출시 배경이 됐다. 국내 수입맥주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주류도 하나의 취향으로 변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감지, 모델로라는 희귀 프리미엄 맥주 도입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품은 전국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마트 정찬우 맥주 바이어는 “모델로 에스페셜”은 이마트가 오랫동안 기획해 한국에 첫 선보이는 프리미엄 라거”라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사전 기획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세계 맥주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롯데百貨, 글로벌 2030 겨냥 소공동에 ‘K-패션 전문관’

본점에 ‘키네틱 그라운드’ 문열어
550평 규모에 15개 브랜드 입점

롯데백화점이 소공동 본점에 글로벌 2030을 겨냥한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키네틱 그라운드는 약 550평 규모로 조성되며, 15개 패션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팝업 매장이 들어선다.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만큼, 3D 기법으로 공간에 어울리는 오브제를 제작하는 ‘강재원’ 작가와 개성 넘치는 그래픽 비주얼로 인기 있는 디자이너 ‘문영URC’와 협업해, 미래 지향적인 공간을 완성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표적인 입점 브랜드로는 ‘마르디메 크르디’, ‘마켄캥’, ‘더바넷’, ‘코이세이오’ 등이 있다. 마켄캥 버블백, 더바넷 블라우스, 스탠드오일 체인백백 등 브랜드별 인기 상품군을 만나볼 수 있다.

팝업 플랫폼인 ‘키네틱 스테이지’ 공간도 마련했다. 롯데백화점은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상품, 팬 상품(굿즈), 시즌별 기프트 상품 등을 중심으로 2주에서 1개월 주기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이달에는 ‘헬로선라이즈’, ‘드브르베’, ‘밀로아카이브&밀로우먼’ 팝업 등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키네틱 그라운드를 잠실점과 부산본점 등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상권에 맞춘 차별화된 매장 구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진승현 패션부문장은 “한국의 드라마와 가요, 뷰티, 푸드 등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세계 무대에서 K-패션 역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키네틱 그라운드를 통해 신진 디자이너 육성 및 K-패션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K-웨이브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골든블루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골든블루

주류박람회 ‘골든블루 부스’ 1만명 방문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성료
‘마이 블루 테스트’ 체험 등에 눈길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골든블루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전문 박람회로 손꼽히는 이번 행사에서 ‘골든블루 퀴츠(GoldenBlue Quartz)’만의 세계관을 감각적으로 구현한 전용 부스를 선보이며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EVERY QUARTZ MOMENTS, 퀴츠가 떠오르는 모든 새.파란 순간들’이라는 테마 아래 꾸며진 부스는 시각적 완성도는 물론, 관람객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음존, 게임존, 커스텀 라운지,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현장에서 운영됐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 약 1만여 명이 부스를 방문해 현장의 활기를 더했다.

특히 간단한 취향 테스트를 통해 어

울리는 하이볼을 추천하고 시음까지 이어지는 ‘마이 블루 테스트(MY BLUE TEST)’와 퀴츠를 베이스로 한 시그니처 블루 하이볼에 다양한 토핑을 더해 나만의 하이볼을 완성해보는 ‘커스텀 라운지(CUSTOM LOUNGE)’ 체험이 눈길을 끌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브랜드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SNS와 연계된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의 자발적인 인증과 공유가 이어졌으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은 온라인에서도 확산돼 ‘골든블루 퀴츠’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골든블루 박소영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골든블루 퀴츠’가 추구하는 감성과 방향성을 관람객들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브랜드가 가진 철학과 매력을 다양한 접점에서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NS홈쇼핑, K-Food 셀러기업 판매지원

중소·벤처 참여사 모집

NS홈쇼핑이 국내 우수 식품 수출 판매를 돕고자 마련한 ‘K-Food 셀러기업 판매지원 사업’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마존 플랫폼에 입점해 한국산 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중소·벤처 판매자다. 해당하는 K-Food 품

목은 완제품 판매가 가능한 한국산 식품류(상온)다.

모집 규모는 총 8개사다. 선발된 기업은 아마존 상품 판매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BA) 비용과 광고 마케팅 비용 중 하나를 택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재선 기자

‘스포츠 자아’ 타고 ‘직관 푸드’ 붐… MZ 여름공략 치열

〈직접 관람하는 관객〉

유통업계, 식음료 마케팅 강화
코카-콜라 파워에이드 제로 확대
대상웰라이프 아르기닌 음료 체험
하림 단백질바·음료 등 현장 공급
서울장수 슬러시 막걸리 선보여
육회바른연어 컵육회·쫄면 출시

MZ세대의 자기표현 욕구가 스포츠 활동과 현장 소비 경험으로 이어지면서 유통업계가 이를 겨냥한 식음료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즐기는 야외 스포츠와 경기 관람은 쿨푸드, 간편식, 제로음료 같은 제품군과 맞물리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운동도 콘텐츠”…마케팅도 진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운동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스포츠 자아’가 부상하고 있다. SNS에는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러닝크루’와 같은 해시태그가 범람하고 있으며, 자신을 ‘러너’, ‘서퍼’, ‘등린이’ 등으로 규정하며 운동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2023년 기준)에 따르면, Z세대의



식음료업계가 무더운 야구장 직관을 겨냥한 쿨푸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91.2%가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39만 건을 기록했던 인스타그램의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는 2025년 6월 기준 900만 건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러닝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운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운동하는 모습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며,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식음료 업계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카-콜라사의 ‘파워에이드’는 러닝과 고강도 퍼포먼스 운동을 즐기는 MZ세대를 타깃으로 제로 칼로리 라인업을 강화하고, 시그니처 컬러 패키지

를 통해 개성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2025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TNF100 강원’ 같은 마라톤·트레일러닝 대회 현장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브랜드 경험을 강화했다.

또한 대상웰라이프는 GQ집 같은 피트니스 이벤트에 참여해 아르기닌 음료 ‘아르포텐 포커스’를 제공하고, 하림은 피트니스 서바이벌 대회 ‘피지컬500’에 참가해 단백질 음료와 바를 제공하는 등 ‘운동 현장에서 만나는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쿨푸드’ 뜬다…야구장 마케팅 전쟁

운동 콘텐츠가 실내 헬스장에서 야외 활동으로 확장되면서 스포츠 현장을 찾는 ‘직관족’의 식음료 소비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2025년에도 흥행 열기를 이어가며, 경기장 내 ‘쿨푸드’ 마케팅의 새로운 각축장이 되고 있다.

서울장수는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달빛유자 슬러시’를 선보이며 전통주에 시원함을 더한 이색 주류로 M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막걸리라는 올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자 향과 슬러시 형태로 젊은 야구팬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간편식 브랜드 ‘육회바른연어’는 테이블 없이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컵물육회’와 ‘육회쫄면’을 선보이며, 1인 식사형 야구장 푸드로 자리잡았다. 요거트월드는 고척돔 등 주요 구장에 입점해 저당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특색 있는 디저트 세트를 구성, ‘직관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딸기퍼펙트월드’, ‘허니스윙월드’ 등 야구 용어를 활용한 제품 네이밍도 MZ 감성을 저격했다.

◆브랜드, ‘스포츠 경험’에 스며들다

MZ세대는 더 이상 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선택한 브랜드’가 내 운동 루틴 속에서 함께 호흡하길 원하며, 실제 공간과 상황 속에서의 체험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SNS 콘텐츠화 가능한 패키지, 스포츠 크루와의 협업, 현장 밀착형 체험 마케팅 등을 강화하며 ‘스며드는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식음료도 하나의 퍼포먼스 경험이 되어가고 있다”며 “MZ세대의 운동과 여가 속에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여름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슈퍼박테리아·패혈증 신약 개발 가속

HLB사이언스

DD-S052P 임상 1상 투약 완료
올 8월 임상 최종결과 확보 예정

HLB사이언스가 다제내성균 감염증, 패혈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신약’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HLB사이언스는 그람음성 슈퍼박테리아 감염증 및 패혈증 치료제 ‘DD-S052P’의 프랑스 및 미국 임상 1상 투약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최종 결과 보고서(CSR)는 오는 8월 말 수령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 1상은 건강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DD-S052P’의 안전성, 내약성, 약물 동태 등을 평가한 것이다. 단일용량 및 다중용량상승 투약 방식으로 진행됐고, 현재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프랑스 임상 데이터는 랍업을 완료했으며, 미국 임상 데이터는 랍업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이를 바탕으로 HLB사이언스는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차기 임상 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DD-S052P는 펩타이드 약물로, 생체 내 높은 안정성과 함께 박테리아 사멸 효능과 LPS 제거 능력을 보유한 이중 작용기전을 갖췄다. 특히 DD-S052P는 LPS에 결합해 직접 균을 사멸시킨다. LPS는 그람 음성균 유래 내독소인데, 패혈증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DD-S052P는 기존 항생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항생제로서 경쟁력을 갖췄다.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슈퍼박테리아가 빈번히 출현하면서, 오는 2050년에는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암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 820만 명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HLB사이언스 관계자는 “DD-S052

P 임상을 통해 글로벌 감염병 시장에 도전하는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인류의 항생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시장환경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HLB사이언스는 감염 및 면역학 전문 기업으로 박테리아 감염성 패혈증, 감염으로 인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감염성 질환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DD-S052P를 자사 핵심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혁신 연구에 집중해 왔다. 2022년 프랑스에서 ‘DD-S052P’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후, 2024년 7월 미국에서 임상 1상 사이트 이전을 위한 시험계획(IND)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을 확보해 올해 1월 투약이 개시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광동제약, 비타500 새 메이킹 영상 눈길

임윤아 광고 모델 ‘굿럭 에너지’ 전해

광동제약이 배우 임윤아와 함께한 비타500 광고 메이킹 영상을 공개해 화제다.

비타500은 지난 5월, 배우 임윤아와 함께 ‘나의 굿럭 에너지’를 슬로건으로 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일상 속 응원이 필요한 순간, 카페인 대신 비타민C로 활력과 긍정의 힘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광동제약은 비타500의 기능적 가치뿐 아니라, 감성적인 공감을 통해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메이킹 영상에는 임윤아와 함께한 광고 촬영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담았다. 임윤아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현장 분위기를 화기에 애하게 이끌었으며, 특히 자연스러운 표정과 연기로 비타500의 브랜드 메시지를



비타500 광고 메이킹 영상 스틸컷.

진정성 있게 표현해냈다는 후문이다.

비타500 관계자는 “촬영 현장에서 보여준 임윤아의 적극성과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굿럭 에너지’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었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소비자들이 비타500 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고 일상 속 활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상과 함께 임윤아의 촬영 현장 비하인드 이미지도 공개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모레퍼시픽 “모공·피지 케어 한 번에”

한울 ‘은행잎 펩타이드 패드’ 선보

아모레퍼시픽이 한울에서 ‘보들은행 잎 모공탄탄 펩타이드 패드’(사진)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패드 제품으로, 피지 조절에 특화된 ‘은행잎’과 피부 탄력에 효과적인 ‘펩타이드’를 복합한 은행잎 비건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다. ‘은행잎 비건펩타이드’는 일반 펩타이드보다

3배 더 강력하게 모공을 조여주는 한울만의 독자 성분이다. 모공 부피와 면적을 줄이고 피부 요철을 매끈하게 관리해 준다.

패드 소재는 3중으로 설계돼 텐셀-거즈-텐셀 구조를 갖췄다. 거즈면이 내용물을 머금고 있고, 피부에 직접 닿는 텐셀면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울 측은 “보들은행 잎 모공탄탄 펩



타이드 패드가 과다 피지 분비로 커진 모공이나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메디톡스, 박형식과 뉴라미스 12주년 캠페인

전세계 35개국 수출 확대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배우 박형식을 메디톡스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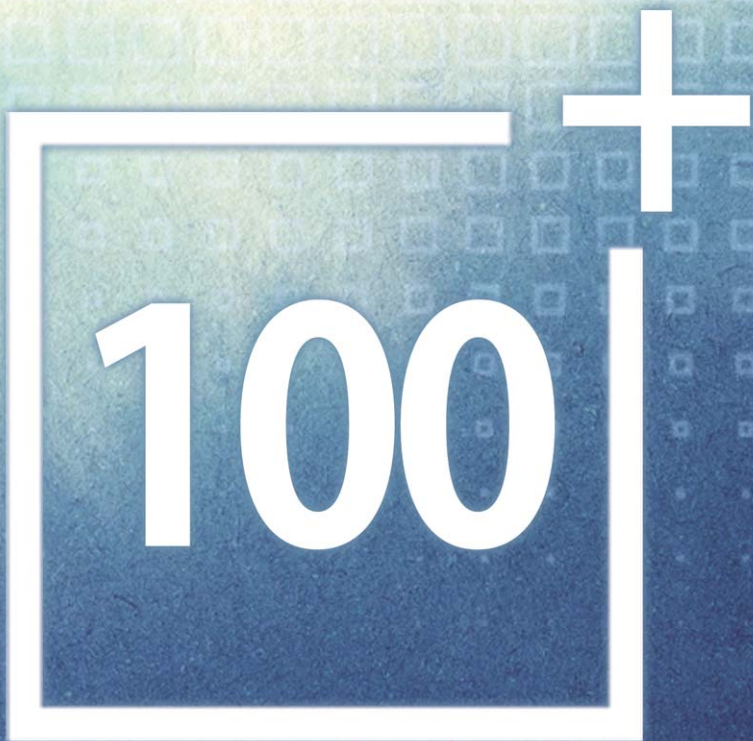
메디톡스는 글로벌 앰버서더로 박형식과 함께 고급 히알루론산(HA) 필러 ‘뉴라미스’의 12주년 기념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TV광고와 지면광고는 물론,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광고, 촬영 비하인드, 숏츠 등

관련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메디톡스는 현재 전세계 35개 국가에 ‘뉴라미스’ 시리즈를 수출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신제품 ‘뉴라미스 하트’, ‘뉴라미스 스킨 인핸서’ 등 2종을 추가해 총 6종의 제품군을 구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의 미래 비전과 배우 박형식님이 가진 다양한 매력이 여러 활동을 통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7월 22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박희운
-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
-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정재훈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 및 리서치센터장
- 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강연	14:50~15:30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15:30~16:1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16:1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아이케어 업’ 행사… 아동보호 앞장선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아이케어 홈’ 사업 등 지원체계 구축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양평에 있는 블룸비스타 호텔앤컨퍼런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케어 업’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아이케어 업’ 행사는 학대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대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전국에



‘아이케어 업(i-CARE UP)’ 행사에 연사로 참여한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특별한 소통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모습.

있는 72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치료사를 초청해 2박 3일간 ▲업무교

류 ▲스트레스 관리 및 DIY 프로그램 ▲힐링 뮤지컬 관람 등 참가자들의 업

무 피로도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상담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 및 부모 면접 상담기술 ▲현장 적용 법률 강의 ▲연사 특강 등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케어(i-CARE)’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심리상담전문 차량을 지원하는 ‘아이케어 카’와 학대피해아동 쉼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아이케어 홈’ 사업 등을 통해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M금융-다날, 디지털 금융서비스 ‘맞손’

iM금융은 서울 iM금융센터에서 다날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인프라 및 첨단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왼쪽 첫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금융



hy, ‘착한 소비, 착한 브랜드’ 기부금 전달

hy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굿피플 사옥에서 ‘착한 소비, 착한 브랜드’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일곤(왼쪽) hy 마케팅부문장과 구영모 굿피플 상임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y



대상그룹, ‘대상레드챌린지’ 전개

대상그룹은 한 달간 2025 대상레드챌린지 R ESPECT YOUR RED!’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분사 등 대상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헌혈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그룹



고려아연, ‘순환경제 페스티벌’ 장관상

고려아연은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천아심 선임이 산업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천 선임은 전자스크랩 공정 실무자로 근무하며 연간 1.7만톤 이상의 폐PCB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구리·금·은 등의 자원 회수에 기여했다. /고려아연



KT&G, ‘상상 마케팅스쿨’ 18기 수료

KT&G가 대학생 대상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인 ‘2025 상상 마케팅스쿨 18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오른쪽 세번째)과 대상 수상팀인 ‘다음’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G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7호’ 조성

삼일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 식재

코웨이가 서울 동작구 삼일초등학교에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제7호’를 조성했다.

3일 코웨이에 따르면 임직원 자원봉사단이 삼일초 19개 학급에 ‘아레카야자’, ‘파초일엽’ 등 공기정화식물 총 494그루를 전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진행했다.

7화차를 맞이한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식물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환경 정서를 함양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친환경 ESG 활동이다.

학생들은 임직원봉사단과 함께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투명페트병으로 제작된 화분에 식물을 옮겨



코웨이 임직원 봉사자들과 삼일초교 학생들이 ‘청정학교 교실숲 제7호’ 조성을 기념해 함께 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심었으며, 이후 각 교실에서 반려 나무 관리와 생육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코웨이 관계자는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는 교실 속 자연 환경을 통해 아이들이 일상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환경 교육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매직,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경영환경 개선

SK매직은 지난2일 경기 화성 SK매직 화성캠퍼스에서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과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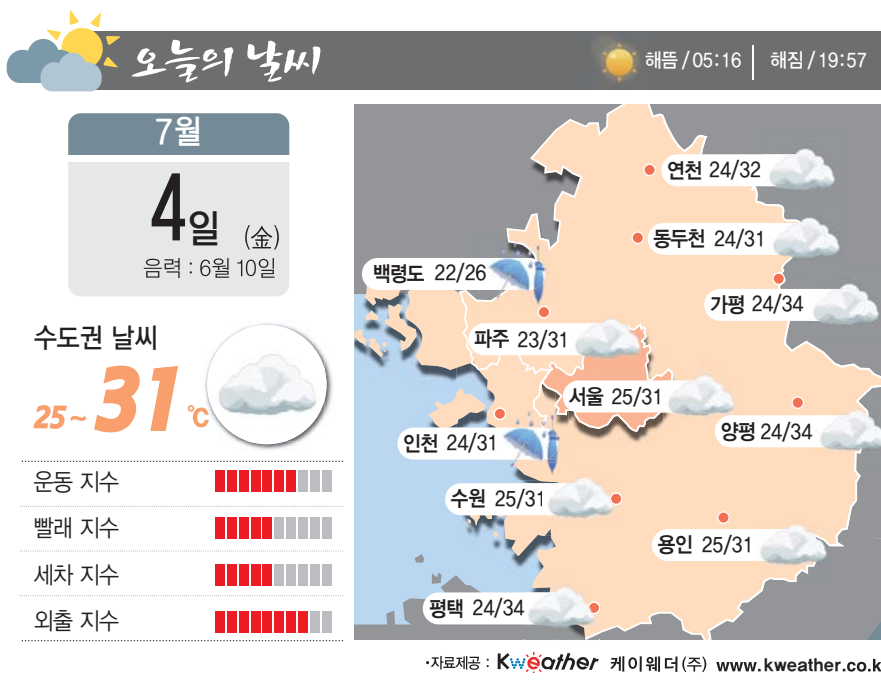
협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일

환으로 마련했다.

SK매직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안전관리 강화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매일 오네’ 배송권역 확대

농경지 인접한 읍면지역 다수 포함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O-NE)’ 배송 권역을 전국 40개 시·군 134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확대 지역은 경기도 파주·김포·여주·이천 등 수도권 내 읍면 지역 및 경남 밀양, 전북 익산 등 주택단지와 농경지가 인접한 읍면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CJ대한통운은 배송 권역 확대로 농어촌 지역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이 한층 높아짐과 동시에 이커머스를 통한

농수산물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온라인몰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해 온 농가, 농업법인과 읍면 지역에 주로 위치한 농어민 판매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7일 물류망이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읍면 지역으로의 배송 권역 확대는 도심권의 생활물류 인프라를 놓여온 지역에서도 누리는 데 의미가 크다”며 “배송 품질을 고도화해 전국 어디서든 ‘매일 도착하는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홈앤쇼핑, ‘K-뷰티’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인터참코리아’ 10개사 참가 지원

홈앤쇼핑이 ‘K-뷰티’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추가로 돕는다.

홈앤쇼핑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인터참코리아’에 총 10개사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홈앤쇼핑은 부스비 및 장치비, 바이어 상담 및 통역 지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 지원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중소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홈앤쇼핑은 향후 다양한 유통 플랫폼과 연계한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K-뷰티 유망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워홈, 한화이글스 스폰서십 협약 체결

아워홈은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와 2025 시즌 연간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손혁 한화이글스 단장과 전준범 아워홈 마케팅 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

여했다.

이번 협업은 아워홈의 새로운 기업 철학인 ‘Every bite feels like home(한 입 한 입이 집밥처럼 따뜻하게)’을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음

▲송원선씨 별세, 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씨 모친상 = 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40분. 02-

2258-5940

▲심인자씨 별세, 김명술(드림투데이 고문·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씨 장모상 = 3일 오전, 광주 만평장례식장 303호, 발인 5일 오전 9시. 062-611-0000

여성 관객
만족도 1위

MUSICAL

헝키 Show

오직 여성만을 위한 LADIES PARTY!

엄마와 딸, 동료, 그리고 현실에 지친 모든 여성들에게
유쾌하고 핫한 바텐더들이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HUNKY
SHOW
보러가기



더 섹시하고 화려하게 돌아온 화이트 코미디 뮤지컬

2025.4.25 - 8.31 스타스테이지

문의 | 주식회사 아츠컴퍼니
070-4287-0258

<헝키쇼 실제 후기>

● k9872**님

★★★★★

어머니께 찐 효도하고왔어요!!^^

와~ 진짜 그런 찐 행복한 표정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공연 끝나고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효도 다 했다!! ㅋㅋ 너무 고마워 ㅋㅋㅋㅋㅋ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

● arri***님

★★★★★

눈호강 제대로 하고온 날!!!!!!

어머니께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드렸다.
엄마랑 이런 뮤지컬 관람나..? 싶었는데
안봤으면 죽을때까지 땀 치고 후회할 뻔!!!

● queeno***님

★★★★★

스트레스 땡!! 도파민 엔돌핀 뽀뽀!

최근들어 이렇게 웃어본적이 언제인가 싶네요.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났어요. 관객참여형이라 더 좋았고
열정적인 춤사위는 아이돌가수의 춤을 보는듯 했어요.

● louk***님

★★★★★

헝키쇼, 상상을 초월하네요

사실 젊은 친구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시누이와 형님,
엄마와 딸, 다양한 연령대! "내 엄마도 여자다!" 그말에
참 많은 생각을하게했던공연이었습니다.
미친 퍼포먼스로 가슴이 땡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새 정부에 바란다...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안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 기간엔 1.2~1.7%이고, 2031~2040 기간엔 0.4%~1.1%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데에는 출산율 저하에 의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이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인해 낮고 총요소생산성 또한 낮음이 지적된다. 흑자는 이를 두고 한국경제가 ‘피크코리아’ 상태에 돌입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새 정부는 노동생산성과 더불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경제혁신을 위해 인공지능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AI 오픈사의 Chat GPT가 등장하기 전에는 디지털기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이 추진됐다. 그러

나 오픈 AI사의 Chat GPT가 대중에게 공개된 2022년 이후엔 AX가 거슬릴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제 AI는 제조,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단순히 생산성 제고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의 체질과 구조 재편 등의 혁신을 가져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각인되고 있다. 올 1월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글로벌 AI 기업지형도 자료에서, 국회는 글로벌 AI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여기에 미국은 59개 기업, 중국은 10개 기업, 영국 7개, 프랑스 5개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에는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은 AI 활성화 공약에서 먼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조기개정,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AI를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AI 투자 100조원의 국부펀드 등도 제안했다. 이들 공약이 국가 정책과제로 제대로 추진되는 경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복원을 통해 피크코리아의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수 있다.

20년간 벤처생태계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필자가 새정부의 AX 추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권 기간 내 결실을 보려는 조급증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인적 인프라로서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공급되는 체계를 마련하여 유능한 인재가 이 공계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갖추어야만 한다. 생태계 조성으로는 무엇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R&D 과제에 대한 결과물 제출에서 연구실패가 인정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보여주기식 정책펀드의 지양이다. 역대 노무현정부에서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번 정권별로 정책 펀드인 선박펀드, 유전펀드, 통일펀드, 뉴딜펀드, 밸류업펀드가 제시됐다. 이번에도 AX펀드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쇼 윈도식 펀드도입보다는 벤처캐피탈체계의 활용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끝으로, AX 관련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규제의 원칙과 방향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기업의 사업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인이 좋아하는 주식



김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지난달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들인 주식은 서울 인터넷 그룹(CRCL)이다. 지난 6월 5일 상장했지만, 서학개미들의 상반기 순매수 상위 4위 종목에 등극했다. 서클은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순수 스테이블 코인 기업으로 주목 받으면서 12거래일 만에 공모가 263.45% 뛰었고, 이후 5거래일 만에 31.51% 하락했다. 다만 타이밍은 다소 아쉬웠다. 서학개미들은 서클이 조정받기 시작하자 더 열심히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레버리지·인버스 투자에 대한 선호가 높은 서학개미들에게 서클은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흥미

로운 투자처인 것이다.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난히 ‘군중심리의 역설’이 잘 먹히는 요즈음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들어맞는 말이다.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비단 서클뿐만 아니라 한 번 불이 붙으면 고점에서도 쉽게 진입했고, 저점에서도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보였다. 눈앞의 급등 차트를 두고 ‘나만 못 먹는 이익’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막연한 추세에 대한 믿음, 언제든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복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불나방 흐름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테슬라’라고 생각된다. 테슬라는 주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서학개미들에게 ‘존버’(끝까지 버틴다는 뜻의 은어)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심어 줬다.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은 어쩌면 당연하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2023년에는 첫 번째로, 2024년에는 두 번째로,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다시 첫 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특히 올해는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도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셰어즈’다. 지난해 7월, 테슬라의 주가는 저점에서 다시 고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에 대한 순매수 성향을 일관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테슬라의 주가 등락과 관계 없이 매수 태도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시장엔 결코 공짜 점심이 없다. 손해 본 누군가의 피눈물이 타인의 수익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제는 급등주가 아닌 실적주를 직접 찾아나설 때다. ‘한 방’을 기대할수록 제되는 빈틈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4일 (음 6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건강을 위해 취미생활을 시작. 48년생 더도 말고 오늘날 같으면 좋겠다. 60년생 급하게 서둘러서 후회가 막급이다. 72년생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독해력이 뛰어나다던데. 84년생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며 친구를 만난다.



37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49년생 자녀와 불화는 대화로 풀려. 61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 73년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85년생 당장은 힘들어도 창업은 다음 날로 해아만.



38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조심. 50년생 두루 베풀면 일이 순조롭게 해결. 62년생 부드러움보다 강하게 나가야. 74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는 천천히 챙겨라. 86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인가.



39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진다. 51년생 직장에 변동수가 있으니 마음을 잡을 때. 63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능력도 최고조이라 행복. 75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날. 87년생 아날로그에 끌리는 음악 감상을.



40년생 새로운 것이나 유행에도 관심을 가지자. 52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 64년생 조직의 뜻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내기보다는. 76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의 거래가 성공적. 88년생 건강검진 진료는 늦추지 말고 바로 받아야 할 것.



41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53년생 구슬수를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65년생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가 없다. 77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선풍기 해결된다. 89년생 모든 일은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42년생 이성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잘못하면 망신 수. 54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하라. 66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78년생 외출을 하면서 행운이 따른다. 90년생 여행이나 산길을 하기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43년생 역사는 승자의 기록에 좌우된다는데. 55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아 이루어낸다. 67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이. 79년생 막혔던 자금이 풀리기 시작. 91년생 제사를 지내고 나니 답답한 기운이 가시고 지혜를 얻는다.



44년생 잠재된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56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을 본다. 68년생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신중. 80년생 능력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92년생 회의에서 객관성은 떨어져도 나서지 말도록.



45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57년생 양보다 질을 따져보고 결정. 69년생 지출이 많으니 재활동으로 아껴라. 81년생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면 활동을 하도록. 93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라.



46년생 마음은 청춘인데 물이 따라주지 않는다. 58년생 공과 사를 올바르게 구분. 70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방걸을 가니, 봐 주는 사람이 없다. 82년생 학문에는 불충분한 학설도 있게 마련이니. 94년생 불이 나도 가까운 곳의 물이 필요.



47년생 이혼이 결국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59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71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83년생 지금부터라도 저축으로 검박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95년생 오전에 북쪽으로 길을 잡으면 행운이 있다.



김상회의 四季 자기소개서 잘 쓰려면

대학입시 때나 취업 원서를 쓸 때 작성하는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가 있다. 자기소개서는 특기 사항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남들보다 특출한 능력을 보여줘야 유리하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게 쉽지 않다. 대학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찾아왔었다. 취업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답답해서 왔다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특기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사주를 짚어보고 학교 다니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봤다. 애기 속에서 분명한 특기를 찾을 수 있었다. 그 특기는 리더십이었다. 리더십을 갖춘 사람의 사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겁재와 양인살이다. 겁재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무언가 일을 추진하는 힘이 강하고 필요할 때는 꼭 부러지게 결단할 줄 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도 특징이다. 양인羊刀살은 칼날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강한 성격에 웬만한 일에는 겁내지 않는 담대함이 있다. 에너지가 넘쳐서 위험을 정면으로 떠안기도 한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고 힘을 갖는 자리나 권력을 원하기 때문에 앞서서 끌어가려고 한다.

이런 리더십은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좋은 특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리더십이 있다고 좋은 건만은 아니니 어떤 능력이란 활용하기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겁재 사주는 성공을 위해 도박 같은 승부를 걸다가 그동안 쌓아온 것을 순식간에 날리곤 한다. 양인살은 남들 위에 서려고 하다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누구나 남다른 능력을 한두 가지는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능력을 개발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차이가 있을 땐 사주를 보면 알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0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0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인 월드파일을 출간합니다!
http://www.argo9.com

결합형 스도쿠

153문제

컬러 스도쿠 110

주사 스도쿠 120

			4	7		2		
6			1			8		
	2	5		3		1		
9							4	1
		2				3		
7	1							5
		7		4		5	1	
		6			3			8
	5		8	1				

	8		5	4			2	9	3
			3	2			4		
				9			5	8	
	4				2				
7									1
			9			3			
	7	9		8					
		2		6	9				
8	5	6		3	4			7	

9	8	7	1	2	8	6	9	3	2
8	2	6	8	2	9	9	7	7	1
2	1	9	9	7	6	2	8	8	8
9	9	2	6	8	8	7	1	2	1
6	8	8	7	1	2	2	9	9	1
1	7	2	9	9	2	8	8	6	6
2	6	1	8	8	9	9	2	7	7
7	9	8	2	6	1	8	2	9	9
8	2	9	2	7	1	6	8		

伊 풀리아 ‘리베라’… 와인을 마시고 입맛을 다시다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최고의 와인이란? 비싼 와인도, 유명한 와인도 아니다. 바로 빈 병이 된 와인이다. 정말 직관적이지 않은가.

와인을 마시고 짹짹 입맛을 다시게 될 줄이야. 한 모금 더 하라는 신호다. 이탈리아 풀리아 지역의 위상을 바꿔놓은 와이너리 리베라의 와인이다.

리베라의 오너 세바스티아노 데 코라토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고의 와인은 첫 모금만 인상적이고 멈추는 와인이 아니라 차분하되 끝까지 비울 수 있는 와인”이라며 “리베라는 신선하면서 골격이 잡 잡혀 한 모금 마시고 ‘짹짹’ 입맛을 다시며 어느새 한 병을 다 비우게 되는 와인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리베라는 이탈리아 풀리아에 위치했다. 사실 풀리아라는 지역은 낯설지 않다. 이탈리아에서 밀은 물론 올리브 오일의 최대 산지로 유명하다. 부라타 치즈가 유래한 곳이기도 하다.

와인 역시 풀리아가 이탈리아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은



이탈리아 와이너리 리베라의 오너 세바스티아노 데 코라토가 풀리아에 위치한 포도밭과 리베라의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높지만 품질에서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 역사는 오래됐지만 벌크 와인이나 대량으로 내보내던 곳이었다. 와인은 농축된 과실로 묵직하면서 달콤했고, 한 모금은 맛있지만 금새 질렸다. 이런 풀리아에서는 처음으로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리베라다. 네로 디 트로이아나 알리아니코, 프리미티보 등 잊혀졌던 토착품종을 살려냈고, 풀리아에서는 처음으로 샤도네이 와인도 선보였다.

40년 전 풀리아에 샤도네이를 처음으로 식재한 이가 세바스티아노의 아버지다. 샤도네이는 가장 많이 재배되는 화



(왼쪽부터)리베라 프렐루디오 넘버 원 샤도네이 2023, 리베라 라마 데이 꼬르비 샤도네이 2022, 리베라 프리미티보 2022, 리베라 일 팔코네 2023 & 2009, 리베라 푸에르 아폴리에.

/안상미 기자

이트 품종이고, 환경 적응성도 좋지만 풀리아에서는 쉽지 않았다. 더운 날씨에 자칫하면 과숙돼 산도라곤 죽어버린 납작한 와인이 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카스텔 델 몬테 DOC에서도 가능한 높이 올라갔다. 고급 샤도네이로 유명한 프랑스 부르그뉴와 같이 석회암 바위가 많은 곳이었다. 흙이라곤 없는 땅에 커다란 암석을 모두 분쇄한 아버지의 ‘미친 아이디어’ 덕분에 풀리아에서는 처음으로, 그것도 좋은 품질의 샤도네이 와인이 탄생하게 됐다.

‘리베라 프렐루디오 넘버 원 샤도네이 2023’은 신선하고 좋은 과실미를 지

니면서 복합미가 균형을 이뤘다. 고소한 견과류향이 오크 숙성을 떠올리지만 리베라는 스틸탱크로만 발효를 한다. 효모 앙금과 같이 숙성한 효과다. 넘버 원은 풀리아 지역에 처음으로 심어진 샤도네이란 의미다.

프렐루디오는 서곡이란 뜻이다. 그림 본 곡이 연주될 차례다. ‘리베라 라마 데이 꼬르비 샤도네이 2022’다. 서곡보다 진지하게 부르그뉴 스타일의 샤도네이를 만들고자 했다.

세바스티아노는 “일부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지만 오크가 주연이 아닌 조연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며 “버터 풍

미와 질감이있지만 여운에서는 침샘을 자극하는 정확한 산미가 있어 다음잔에 또 손이 가는 와인”이라고 강조했다.

‘리베라 푸에르 아폴리에’는 리베라가 만드는 최고 등급 와인이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네로 디 트로이아 품종 100%인 와인이다. 타닌이 워낙 강하다보니 다른 곳에서는 엄두를 못내지만 리베라는 다스리는데 성공을 했다. 검은 과실미에 꽃과 향신료 향이 어우러지고, 치즈나 살라미는 물론 한국 바베큐와도 잘 어울릴 맛이다.

‘리베라 일 팔코네’는 리베라가 설립된 1950년부터 만든 와인이다. 지역 대대로 내려온 네로 디 트로이아 70%와 몬테풀치아노 30%의 비율로 블렌딩했다. 미디엄 바디에도 구조감이 잘 잡혔다. 좋은 산도와 타닌으로 숙성잠재력은 이미 검증됐다. 와이너리가 첫 빈티지인 1950부터 100병씩 보관했는데 1950에서도 약간의 타닌이 느껴지는 상태다. 2013 빈티지는 10년이 지났지만 과실미가 생동감이 있었고, 2009 빈티지도 좋은 산도가 여전했다.

그는 “리베라 일 팔코네는 매우 천천히 숙성돼 뛰어난 복합미를 보여준다”며 “기차로 비유하면 속도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궤도를 따라가며 정해진 시점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라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주말은 책과 함께

메가박스, ‘쥬라기 월드’ 등 영화신작 돌비시네마 상영

메가박스가 압도적인 액션으로 여름 더위 날릴 7월 개봉작 세 편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슈퍼맨’,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을 돌비 시네마에서 상영한다. ‘쥬라기’ 시리즈의 새 막을 올리는 작품부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에 합류한 ‘판타스틱 4’의 이야기까지 구성된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더욱 몰입감 있게 관람할 수 있다.

2일에는 스칼렛 요한슨의 합류로 화제를 모은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 개봉한다.

9일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로 독보



적인 연출력과 트렌디한 감각으로 블록버스터 장르의 새 장을 열었던 제임스 건 감독이 ‘슈퍼맨’을 통해 또 한 번의 역대급 액션의 탄생을 알렸다.

24일에는 마블의 첫 번째 히어로 패밀리 ‘판타스틱4’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본격 합류를 알리는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이 개봉한다.

카카오프렌즈, 부산서 ‘캐릭터존·춘식투어’ 운영

카카오는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가 부산 수영구청과 5일부터 8월 31일까지 ‘프렌즈투어 IN 광안리’ 캐릭터존을 운영하고,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시티투어 프로그램 ‘춘식투어’를 진행한다.

‘프렌즈투어 IN 광안리’는 대형 포토존으로 광안리해변 유니버설 데크로드 앞에 조성된다. 현장에는 6.5m 높이의 초대형 라이언과 춘식이 애드벌룬을 비롯해 패들보드를 타는 춘식이 등 여름 휴가 콘셉트를 살린 대형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된다.

5일에 진행되는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에서는 ‘프렌즈투어 IN 광안리’를 주제로 드론쇼도 선보인다. 오후 8시와 10시 총 2회에 걸쳐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10일부터 운영하는 ‘춘식투어’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기획한 부산시티투어 프로그램이다. 춘식이 캐릭터로 꾸며진 래핑버스를 타고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투어버스가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춘식투어 스페셜 가이드북’과 ‘춘식투어 웰컴키트’가 제공된다.

‘모비 딕’을 통한 번역의 투명성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는 ‘밀크맨’으로 제14회 유영번역상을 받은 흥한별 작가가 말하는 ‘번역의 기쁨과 슬픔’을 다룬 책이다. 첫 장에서 작가는 허먼 멜빌의 ‘모비 딕’을 통해 번역이 왜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한다. 모비 딕은 에이해브 선장이 자신의 한쪽 발을 앗아간 흰 고래에게 복수하는 간단한 줄거리의 소설이지만, 장장 135장(章)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에이해브 선장은 책의 4분의 1지점이 돼서야 비로소 고래 뼈로 만들어진 의족을 단고 등장하고, 모비 딕은 133장까지 가야 흰발을 번역이며 나타난다.

‘고래의 흰색’이란 제목이 붙은 책의 42장은 에이해브 선장이 추적하는 고래가 하얗다는 점을 파고든다. 소설의 화자 이슈메일은 흰색이 주는 섬뜩한 공포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저자는 ‘흰 고래는 흰색처럼 모든 것을 표상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공허’라고 말한다. 흥 번역가의 해설을 읽다가 이란의 시인 파리드 우딘 아타르가 쓴 시 ‘새들의 회의’가 떠올랐다. 작품에서 새들은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 새들의 왕 ‘시무르그’가 떨어뜨린 깃털을 발견하고 전설 속 신성한 새를 찾아 기나긴 여행을 떠난다. 갖가지 고생 끝에 새들은 시무르그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결국 에이해브 선장이 찾던 ‘흰 고래’와 새들이 찾아 헤맨 ‘시무르그’의 궁극적 실체는 ‘무(無)’였던 것일지 모른다. 모비 딕은 얼핏 끝없는 추적의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흥한별 지음/위고

대상으로 보이지만, 실은 고래를 집요하게 쫓는 에이해브의 광기 속 그 자신이다. 시무르그 역시 여정의 끝에서 새들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흰 고래를 통해 신(神)적 실체에 다가갔던 에이해브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허무를 느끼고, 신 일합일(신과 하나됨)을 꿈꾸던 새들은 길의 끝에서 ‘자아의 소멸’을 경험한다. 궁극의 진리를 마주하는 건 존재가 무너지는 체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저자는 “번역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흰 고래 같은 텍스트를 만나게 된다”며 “잡하지 않는 공허, 포착할 수 없는 의미, 붓질을 더할수록 더럽혀지기만 하는 순백.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번역은 얼마나 투명해져야 하는가”라고 한탄한다. 272쪽. 2만원.

/김현정 기자 hik1@



▲트럼프 “日, 버릇 없어”… 관세협상 교착에 ‘폭언’ 압박 /사진 뉴시스

▲시진핑·푸틴 못가는 리우 브릭스 정상회의, ‘단결력 의문’ 분석 나와

▲유럽의회, 내주 EU 집행위원장 불신임 표결… 부결될듯

▲관세충격+정국혼란 속 외국인 등 돌렸다… 상반기 외투 전년비 14.6% ↓

▲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국경 난민신청 차단은 월권”

▲美 “이란 핵개발 2년 지연… IAEA 협력 중단 용납 안돼

메트로 한줄뉴스



빠른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유통가 고객유치전
L1



Life

식음료업계
운동·여가 맞춤
여름 마케팅 펼쳐
L2



- 1 미술장식품과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메이플 갤러리 가든'
2 커다란 팽나무가 식재된 '워터폴 가든'
3 이원경 작가의 '깃-숲' 4 류신정 작가의 '인상:활력'
5 캐나다 천개의 섬을 모티브로 조성한 정원 '메이플 아일랜드 가든'
6 미국풍 나무 수놓아진 '스위트컴 라운지'

/전지원 기자

푸른 물결 위 흐르는 단풍 물결... 자연이 채운 조화의 정원

지하철 잠원·반포역 '초역세권' 단지
학군, 생활 인프라, 광역도로망 갖춰
단풍잎 상징으로 단지만의 공간 꾸며

곳곳에 한여름 더위 날려줄 수경시설
화단, 데크길 등 산책·휴식 공간 풍성
단풍나무, 배롱나무 등 울창한 숲 조성
단지 매력 살리는 자연친화적 작품도

아파트의 미학(美學) 메이플자이

최근 찾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아파트. 지난 6월 30일 입주
를 시작했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반
포역 6번 출구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단지가 보인다.

입구를 감싸는 거대한 석재 마감 게
이트는 단지의 위용을 드러낸다. 연회
색 톤은 자칫 밋밋할 수 있
는 입면에 단정하고 고급미를
더하고, '자이(XI)' 로고만
남긴 미니멀한 디자인은 절
제된 품격을 표현한다.
건물 외벽에는 이 단지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단풍잎
모양의 조형물이 시선을 끈
다. 여러 개의 직선 라인 위
에 얹힌 단풍잎은 단지에 상
징성과 생동감을 더한다.



단지 인근에는 ▲원촌초·중 ▲경원
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이 몰려있고 ▲서초 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반포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 7호선 반포역
과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이다. 단지
주변으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갖춰져 있
다.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신세계백
화점,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신
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서울
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GS건설이 시공한 메이플자이는 지
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전용
면적 43㎡~165㎡ 총 3307가구로 구성
됐다. 단지로 들어가니 메이플자이만
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앞에는 '포드라운지'가 위치해
있다. '포드'는 물을 건널 수 있는 얇은
곳을 뜻한다. 스피어 토출구에서 쏟아
지는 물줄기는 한여름 더위를 씻어주
며, 낮게 설계된 석고는 아이들이 뛰
어놀기에도 안전하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도 하
나의 조경으로, 다양한 테마를 구상해
섬세하게 꾸며냈다. '바람 따라 둥지
에 놀러 온 종달새'는 왕왕 부는 바람
을 따라 이웃 둥지에 놀러 온 종달새
를 테마로 했다. 바람의 자유로운 곡
선을 형상화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
이터다.

'아름다운 풍경의 단풍나무 골짜
기'는 알록달록 단풍잎 사이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의 단풍나무 아래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대나무숲의
잠자는 아기판다'에서는 아기판다와
함께 초록빛 바람을 타고 신나는 이야

기가 펼쳐진 대나무 숲속을 뛰어놀 수
있다.

판다 조각상 옆에는 '스톤테라스'가
있다. 단지 경계부 단차가 크게 나는
공간을 돌이 있는 화단과 데크길로 조
성해 휴게와 산책을 유도한 공간이다.
하나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돌무리들과 그 사이 솟아오른 소나무
와의 조화는 메이플자이만의 독특한
경관이다.

'메이플 몽트'는 메이플(단풍)과 몽
트(언덕)를 합친, 단지 중심을 잇는 메
이플가로의 새로운 이름이다. 가을이
되면 다채로운 붉은빛 단풍의 아름다
움이 물들게 된다.

'메이플 아일랜드 가든'은 캐나다의
세인트로렌스강을 따라 떠 있는 천개
의 섬을 모티브로 한 정원이다. 녹지
섬 위 나무들이 물위로 비쳐 그 아름다
움을 더한다. 곡선의 캐스캐이드를 따
라 흐르는 물들은 곡선의 플랜터, 휴
게 캐노피와 어우러져 마치 감미로운
음악을 보는 듯한 풍경을 연출한다.

'워터폴 가든'은 커뮤니티 시설 상
부의 놀이터 파고라와 지상부 수경의
경관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정원이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퍼져 나가는 모
습을 화강석으로 겹겹이 올려 표현했
다. 물결 너머 심겨진 커다란 팽나무가
묵묵히 그 풍량을 이겨내는 모습이다.

워터폴 가든에는 '고요한 그늘의 시
인' 팽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도심 속
에서도 공기를 맑게 하고 새들의 안식
처가 되어 준다. 도심의 뿌리 깊은 벗
이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자묵으로
사랑받는 나무이다.

'그린레인 가든'은 길게 이어진 수
로 주변으로 변화하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휴게공간이다. 블루앤젤측백
과 루브룸 단풍나무가 열지어 깊은 경
관을 연출한다.

'메이플 갤러리 가든'은 티하우스와
데크, 야외 갤러리가 같이 조성된 공
간이다. 곳곳에 배치된 미술장식품과
물에 반사된 단풍나무, 배롱나무의 모
습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가장자
리에 심긴 울창한 나무 아래서 물속에
잠긴 잔잔한 곡선의 불빛을 감상하며
긴 호흡으로 쉴 수 있다.

'프롬나드 가든'은 열린 녹지에 흠
뻗어진 팽나무 사이를 유유히 가로지
르는 동선과 유려한 곡선의 파고라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바람결에 산
들거리는 사초류를 즐기며 느리게 걸
을 수 있는 산책공간이다.

'스위트컴 라운지'의 구름 형상을
한 바테이블 내 심겨진 나무는 미국풍
나무다. 단풍나무와 비슷한 잎모양을
가지고 있고, 가을에는 다양한 색상으
로 숲을 별무리처럼 수놓는다. 나무
그늘 아래 향긋함을 즐기며 달콤한 휴
식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여러 작가의 작품들은 단지를 더욱
빛나게 한다. 이원경 작가의 '깃-숲'
은 포근한 깃털의 이미지와 곧게 솟은
나무들과 울창한 숲의 이미지를 함께
읽어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깃
털이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을 시각화했다.
류신정 작가의 '인상:활력'은 패턴이
인간에게 인지와 인식을 주는 현대사
회의 중요한 핵심을 지닌다. 작품은
화색빛 도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
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 스토리로 희망
적 생명성을 표현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